

영호남시·도지사, 지방분권·지역균형발전 공동 대응한다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10대 분야 공동 대응 성명서 채택

영·호남 시·도지사들이 한목소리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하는 대전환을 위해 지방정부 간의 협력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공동협력 과제와 지역균형발전과제를 공동성명서로 채택하고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합의했다.

대응, 수도권 과밀화 등 3대 분야의 정책과제를 담은 건의서를 시도지사에게 전달하고 청년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도 나누는 시간을 가지는 등 민생현안을 함께 공유하는 협의 회 자리로 만들었다.

[칼럼]개를 모시고 어른을 방치하면?

아이가 태어나 자라고 다시 아이를 낳아 어른이 되는 것이지 처음부터 어른은 없었다.

들은 얼마나 밀어드렸을까. 개가 똥을 싸면 배변봉투까지 들고 다니며 치우지만 혹여 부모가 똥을 싸면 그렇게 치울 수 있을까.

'1인당 최대 900만원' 청년채용특별장려금 28일부터 신청

고용노동부는 오는 28일부터 고용보험 누리집(http://www.ei.go.kr)에서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금될 예정이다. 또한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동일한 근로자에 대해 유사한 기업지원 사업인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특별고용촉진장려금과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없다.

코로나 백신 오접종 총 105건 발생...방역당국 "방지대책 마련"



▲ 1차 백신 접종이 1천만 명을 훌쩍 넘어선 지난 11일 오전 서울 중랑문화체육관에 마련된 코로나19 접종센터에서 화이자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있다.

예방 접종은 물론 치석제거 검, 미용, 목욕, 영양 간식 등 사람 하나 기을 만큼의 비용과 정성이 들어간다.

우리 대한민국이 그 어떤 분야에서도 밀릴 만한 게 없지만 가장 높은 가치로 인정받았던 분야가 지금은 가장 낮은 점수를 받고 있는 게 바로 어르신에 대한 공경이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신청 안내: 청년 일자리가 더 많이 창출되고 코로나19 상황에서 빠르게 고용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5인 이상 중소기업, 5인 미만 중소기업, 5인 미만 중소기업, 5인 미만 중소기업.

여수시, 자전거 타고 푸른 바다 달려... 여수섬섬길 코스 조성. 여수시, 자전거 타고 푸른 바다 달려... 여수섬섬길 코스 조성.

전남도의회, '119생활안전순찰대' 예산5천만원 편성 '눈길'

“의회, 집행부 간 소통으로 추경 예산에 신규 편성 의결”



전남도의회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도내 취약계층 생활안전망 구축을 위한 예산을 편성해 눈길을 끌었다.

전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1일 열린 전라남도 2021년도 제1회 추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서 '119생활안전순찰대' 운영

예산 5천만 원을 증액 의결했다.

'119생활안전순찰대'는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생활 속 위험요소를 미리 찾아내 제거하는 적극적인 소방서비스로 기존 119 신고 시 소방대가 출동하는 방식과 차이를 두고 있다.

전남소방본부가 전국 최초로 지난

4월 강진소방서와 장흥소방서 등 2개 군에 별도의 예산 편성 없이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전남도의회는 2020년도 결산 심사 과정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소방서비스를 제공하는 점검단 운영이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 판단하고 별도 사업 예산 편성을 고려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127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는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소관 상임위인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최무경 위원장과 이혁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뜻을 모아 집행부와 사전 협의를 통해 소통 과정을 거쳤으며, 그 결과로 예산 편성이 매끄럽게 진행됐다는 후문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영수 부위원장은 “예산 심사권을 지닌 도의회가 사전 협의 없이 예산 신규 편성을 요구하는 것은 자칫 의회와 집행부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도의회와 도의 긴밀한 소통이 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예산 편성으로 순조롭게 이어졌다”고 밝혔다.

'119생활안전순찰대'는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65세 이상),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주택화재 예방 안전진단, 생활의료서비스, 생활불편·위험환경 개선 등 밀착형 생활안전 서비스를 제공하고, 상시 지역 순찰을 통해 생활 속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 제1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됨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도내 22개 시군 전체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김영만기자

'공공의료포럼', 한국 공공의료 대전환의 기치를 든다



한국 공공의료의 대전환을 기치로 '공공의료포럼'이 첫발을 내디뎠다.

6월14일 오전10시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개최된 포럼 출범식에서 공동대표 선출된 이용빈 의원은 출범 환영사에서 “국가의 기본적 책무는 누구나 차별과 배제 없이 건강권을 누리게 하고,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한국 공공의료의 새판을 짜는데 모두가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축사에서 지난해 3월 대구지역 코로나 확산시 응급상황에서 14번의 코로나 검사 받으며 병원을 전전하다 끝내 사망에 이른 고정유염군의 아버지 정성재 씨는 “이 땅에서 다시는 의료공백으로 목숨을 잃은 일이 재발해서는 안 된다”며, 의료공백 재발방지 대책과 경산의료원 설립 지원을 호소하였다.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은 영상 축사를 통해 코로나19로 공공의료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기대가 높은 상황이라며 정부는 향후 5년간 4조 7천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히고, 공공의료를 충분히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 부족하다며 사회 각계의 지지와 도움을 요청하였다.

포럼은 창립총회에서 지역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공공의료 강화를 통해 어디서나 보편적으로 의료혜택을 누릴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데 매진할 것을 결의하였다. 특히, 포럼을 공동 주최한 의원들은 인사말을 통해 지역간 의료불균형 문제를 지적하며 가장

시급히 해소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포럼은 출범선언문을 통해 빈약한 공공의료 하에서 미국이나 유럽처럼 코로나 방역에 실패했다면 엄청난 국가적 재앙을 맞았을 거라면서 열악한 공공병원들이 앞장서 사투를 벌였기에 국가 경제는 멈추지 않고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공의료의 확대는 지역별 의료이용 격차와 불평등 해소, 국민 의료비 절감을 넘어 지역경제와 지역균형 발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파급효과를 낳으며, 국방, 소방, 교육 등과 마찬가지로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보장하는 공공의료 인프라 역시 국가의 역할임을 분명히 했다.

포럼은 창립총회에서 포럼을 이끌어갈 공동대표로 이용빈 의원을 포함하여 남인순 의원, 박찬대 의원, 배진교 의원, 강창구 전 의료연대회의 운영위원장, 조경애 전 건강세상 네트워크 공동대표를 선출하였다.

이번 포럼출범에는 많은 국회의원들이 동참하였으며, 이용빈 의원 외에도 11명의 의원들이 포럼과 뜻을 함께 했다.

포럼은 향후 토론회와 세미나, 지역순회 정책간담회 등을 통해 공공의료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가면서, 동시에 공공병원 확충에 필요한 예산활동, 이를 지원하기 위해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데 모든 역량을 모아가기로 결의하였다.

최광수기자

경북도의회 박판수 의원, 도정질문 통해 일본의 반역사적 도발행위 강력 규탄하며 '독도는 대한민국 땅' 슬로건 교육 등 강조

경북도의회 박판수 의원(김천2·국민의힘)은 지난 11일 제324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교통인프라 선제적 구축, 김천혁신도시의 내실화, 경북도만의 차별화된 독도 정책 등 도정현안과 대안교육기관 지원 대책, 독도 교육지원 방안 마련 등 교육행정 현안에 대해 질의했다.

박 의원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교통인프라 구축과 관련해 “김천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을 연결시켜줄 ‘김천~신공항~의성’ 철도연결 사업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초안에서 누락되었고, 많은 이용이 예상되는 68번·923번 지방도는 확장계획조차 없는 상황이다”면서 “향후 20년간 공항인프라 구축 등의 계획이 담긴 ‘제2차 국가기반교통망계획’공정회 발표자료에도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관련 내용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박판수 의원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이 애물단지 공항이 전락하지 않도록 교통인프라 구축에 경북도 차원에서 선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특별법 제정 또한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천혁신도시의 내실화와 관

련해 “타 혁신도시는 기업과 일자리가 대폭 증가하고 혁신클러스터 기업을 원도심과 주변지자체에도 유치한 반면, 김천은 기업 및 일자리 증가율과 혁신클러스터 기업유치가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라고 질타하면서 혁신도시 시즌2와 관련해 성공적인 기관 유치를 통한 김천혁신도시의 내실화와 함께 원도심과의 상생발전에 관해서도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대안교육기관 지원과 관련해, 박 의원은 “인가된 대안학교에 지원된 코로나19 관련 예산은 정원기준 1인당 1,423원에 불과하고, 특히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에 대한 지원은 전무하여 청소년들의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기본적인 지원조차 소외되고 있다”면서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운영비 지원 현실화, 위탁교육기관 다양화 및 지원 시책마련에도 노력해줄 것”을 촉구했다.

끝으로 박판수 의원은 “최근 일본 도교올림픽조직위원회가 성화봉송 지도에 독도를 일본영토로 표기한 것에 대해 경상북도의회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고, 일본의 반역사적 도발행위를 강



력 규탄한다”면서 경북도의 독도 사업 및 교육지원 방안에 대한 도정질문을 이어나갔다.

박 의원은 “경북은 독도의 소재지임에도 불구하고, 독도와 관련한경북도만의 차별화된 정책은 보이지 않는다”면서 독도 관련 공모사업을 통한 우수 결과물 활용과 통합신공항 출국장에 독도 홍보관 건립 등을 제안했다.

이어, 독도 교육지원과 관련하여

“학생들에게 ‘독도는 우리 땅’이 아닌 ‘독도는 대한민국 땅’으로 가르치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슬로건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사이버독도학교에 ‘독도 주민 E-러닝’ 과정 등을 개설하여 이를 이수한 국민에게 명예주민증 발급을 위해 경북도·울릉군과 협조하는 등 경상북도교육청이 독도 교육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김세기기자

http://www.dailyculture.kr 문화매일 facebook.com/dalyculture.kr

우편번호: 08333 서울 구로구 개봉로 12길 9-19 105동 201호
우편번호: 14222 광명시 시정로7 흥신에이스텔 701호

발행·편집인: 최수진 / 회장 문기주/부회장 박류석 / 사장 임석경 / 편집국장: 최재은
청소년 보호 책임자 발행인: 최수진

대표전화: 1899-9659 e-mail: ekwk44@naver.com sujin004344@daum.net

2009년 4월 12일 창간 정치부: 내선 (112) 문화부: 내선 (116)
2009년 3월 12일 등록번호: 서울.가50146 사회부: 내선 (113) 부동산부: 내선 (117)
본지는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한다 경제부: 내선 (114) 오피니언부: 내선 (118)
대표전화: 1899-9659 스포츠부: 내선 (115) 지방부: 내선 (119)
편집국: 02)2612-2959 팩스: 02)2060-4147 구독신청·배달안내: 1899-9659 구독료: 월 15,000 1부 800원

모두를 위한 안전벨트, 양쪽 귀에 걸어주세요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19를 예방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우리의 가족과 이웃의 건강을 위해 모두가 함께 마스크 착용에 동참해 주세요.



종로구, “주차난잡고 지역경제엔 활력”... 삼청공원 입구 ‘공영주차장’ 건립 파란불

종로구가 삼청공원 입구에 위치한 국군서울지구병원 부지 지하에 연내 지하 2층, 170면 규모의 공영주차장 건립을 위한 첫 삽을 뜬다. 지난 20여 년간 이 일대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던 주차장 건립이 현실화됨으로써 삼청동과 북촌 일대 주차환경을 크게 개선하는 것은 물론,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에도 청신호가 켜질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북촌한옥마을 인근의 골목길 경관 훼손이나 소방차 진입 문제 역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마침내 개정돼 지방자치단체가 기관 간 협력을 토대로 국유지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개정 법령이 지난해 10월 시행된 구는 대통령령고처, 국방시설본부 경기남부시설단, 국군서울지구병원의 적극적인 협조로 주차장 건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업무협약 또한 체결했다.

주차장이 북악산 기슭에 자리한 국군서울지구병원 부지에 세워지는 만큼, 대통령령고처의 ‘열린 청와대’ 방침 하에 2020년 11월 시행된 북악산 둘레길 개방과 맞물려 더욱 의미를 지닌다.

종로구는 행정안전부의 투자심사가 올해 3월 완료돼 총 건설비 220억 가운데 국·시비 120억 원 확보를 앞두고 있다. 지난달에는 총괄적인 기획재정부의 국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승인이 통과됨에 따라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연내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편 구는 도심에 위치한 종로의 주택가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명륜동 외곽공영주차장·문화센터’, ‘송

인도담 공영주차장’ 등을 꾸준히 건립해 왔다. 올해 1월에는 ‘부암동 무계원 남측 공영주차장 및 문화시설’ 착공에 들어가 12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밖에도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각종 사업 또한 꾸준히 실시하는 중이다. 그 예로 담장, 대문 등을 허물어 주차면을 조성하면 비용을 지원해주는 ‘그린파킹 사업’, 주차공간이 필요한 타 운전자에게 유휴시간 동안 자신의 주차면을 공유하는 ‘거주자 우선주차장 공유서비스’를 들 수 있다.

김영중 구청장은 “이번 공영주차장 건립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주거지 주차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선도모델’임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부지 확보가 가능한 곳을 모색하여 주민 삶에 편리함을 더해 줄 공영주차장을 포함한 사회 기반시설을 확충하고자 불철주야 노력하겠다”고 힘주어 전했다.

최광수/기자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진흥지구 내 ‘시네마스케이프’ 개최

여의도 신영증권(국제금융로8길 16) 앞에 야의 영화관이 펼쳐진다. 영등포구가 ‘여의도 시네마스케이프’ 행사를 이달 14일부터 18일까지 신영증권 앞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본 행사는 여의도 금융진흥지구 타운매니지먼트 사업의 지역활성화 촉매 프로젝트다. 행사장을 찾는 관객들은 스크린 앞에 마련된 인조잔디밭에서 빈백 등에 앉아 영화를 관람할 수 있다.

행사 기간 동안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레이첼 그리피스 감독의 ‘라라랜드’(2020), 오후 3시부터 7시까지는 샘 멘데스 감독의 ‘1917’(2020)이 상영된다. ‘1917’은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봉준호의 ‘기생충’과 함께 작품상 후보에 오르기도 했던 수작이다.

이외에도 도심 속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인조잔디와 파라솔 및 휴게 시설로 꾸며진 공간 ‘여반가든’, 코로나19로 여행에 목마른 사람들을 위한 도심 속 캠핑 컨셉 공간 ‘시티캠핑존’ 등, 행사를 찾는 관객들의 여가생활 욕구를 채우기에 부족함이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티캠핑존에서는 직장인들이 점심을 먹으러 나오는 12시부터 12시 30분까지 버스킹 공연도 즐길 수 있다.

또한 구는 행사장을 찾는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현장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일상생활 속 불편사항을 비롯

해 공공공간 활용방안과 금융중심지 발전을 위한 제안 등 다양한 의견을 접수할 예정이다.

‘여의도 시네마스케이프’ 개장 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다. 구는 방문자 QR체크인 및 발열 체크, 손소독 등을 실시하고 행사장을 주기적으로 소독하며 철저한 방역 관리에 나선다. 참여 인원수 또한 99명 이내로 통제할 방침이다.

한편 행사기간 중인 17일에는 신영증권 회의실에서 구·신영증권·(주)프롬 간 ‘여의도 타운매니지먼트 사업’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한다.

타운매니지먼트란 도시 관리를 행정기관 중심에서 민간 주도로 전환하는 새로운 도시재생 모델이다. 도시공동화로 동력이 떨어지는 중심업무지구에 공인받은 민간조직이 공공공간을 포함한 지역관리를 프로그램 운영으로 도심 활력을 높이는 ‘거버넌스형 도시관리’ 사업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영등포구와 신영증권, (주)프롬은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본 구상 단계부터 함께하는 거버넌스를 구축, 공공부지 개선 방향 등을 논의하며 사업 추진에 힘을 실게 된다.

아울러 타운매니지먼트 사업은 민간의 참여가 관건인 만큼, 구는 사업에 참여할 대상지 내 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데도 힘을 쏟을 방침이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이번 행사



가 도심 속에서 야의 영화감상은 물론 캠핑과 음악도 만끽하는 기회로서 코로나19로 지친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활력을 주길 바란다”라며, “이를 시작으로 본격화된 여의도 타운매니지먼트 사업은 여의도 금융진흥지구가 국제금융 중심지로 도약하는 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현일/기자

은평구, 적극행정 사례 타 시·도 벤치마킹 확산



참여하는 등 구민참여형 적극행정을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2019년 10월 시범운영(20개 거점)을 통해 시작된 ‘자원재활용 그린 모아모아 사업’은 2021년 6월 현재 16개 모든 동주민센터(150개 거점)로 확대되었고, 버려진 아이스팩을 세척하여 소상공인이 재활용하도록 하거나 리유생산이 가능한 투명페트병을 아웃도어 업체에 납품하는 등 재활용 영역을 확장하는 중이다.

또한 도로 중앙에 위치하여 수년간 소방차 등 긴급재난 차량 통행을 방해한 지장전주를 옮겨 주민들의 통행 불편과 화재 등 불안 요소를 해소하고 횡단보도 바닥신호등을 개발하여 등·하교길 학생들과 시민들이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하는 등 구민 생활과 밀접한 현장을 중심으로 적극행정을 펼치고 있다.

특히 2020년 8월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아이 낳기 좋은 은평을 만든다는 취지로 시작된 ‘아이맘 택시’는 코로나19 감염병으로부터 면역

력이 약한 영유아 및 임산부 보호를 위한 전국 최초 전용택시 제도로서 2021년 6월 현재 2천 5백여명의 회원이 등록하는 성과를 만드는 한편 여성가족부에서의 사업소개에 이어 서울시 자치구를 비롯한 타 시·도로 확산되고 있다.

아이맘택시를 이용한 김00씨는 “100일도 안된 아기를 태우고 운전할 용기도 없고, 매번 남편에게 부탁할 수도 없었는데 집 앞에서 바로 타고 병원입구에서 내리고 4번 이용해 봤는데 기사님들도 모두 친절하시고 좋았습니다.”라고 이용 소감을 전했다.

구 관계자는 “직원들의 노력으로 일궈낸 적극행정 성과를 앞으로 우리구의 핵심 역량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전개하여, 구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공무원들이 적극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전컨설팅 지원과 우수공무원 선정 등 적극행정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상순/기자

성북구, 해피 트리~ 해피데이! 마음을 함께하는 아파트 만들어요!!

입주민과 관리사무소, 경비원이 힘을 모아 마음을 공유하는 공동주택 실천

신일해피트리 입주자대표회의(유수옥 회장)는 2년 전 화단의 울타리를 조성하면서 아파트 관리비가 아닌 동대표들의 기부금으로 울타리를 만들고 기부자 명판을 만들어 해피트리 입주민으로서의 자긍심과 소속감을 높이기로 의기투합했고, 이렇게 조성된 화단과 울타리를 보고 입주민들의 릴레이 기부가 이뤄져 올 해 2차 기부 울타리를 조성하게 됐다.

신일해피트리의 화단과 기부 울타리 명판이 더 뜻깊은 것은 목목 구입부터 식재, 울타리 조성, 기부 명판 제작까지 모든 과정에 입주자대표회

의, 입주민, 관리사무소, 경비원이 함께 했다는 것이다.

회장과 관리사무소 직원이 좋은 묘목을 구할 때까지 화훼시장을 방문하고, 묘목에 달 셋노란 기부자 이름표를 완성할 때까지 동대표들이 직접 여러 차례에 걸쳐 페인트를 칠하고 말리는 과정의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았다.

또한, 울타리를 심기위해 땅을 고르고 울타리 하나하나 끈으로 엮는 작업은 손재주 좋은 입주민의 재능기부가 함께 했으며, 이 모든 과정에 관리사무소 직원들과 경비원이 함께 하면서 아파트에 거주하는, 근무하

는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조성한 풍경이다.



강성원/기자

강동구, 친환경 도시농업거리 '도시농업 상상거리' 명칭 확정



강동구가 친환경 도시농업거리 조성을 앞두고 거리 명칭 공모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접수 후 심사를 거쳐 ‘도시농업 상상거리’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구는 주민에게 힐링과 교육의 공간을 제공하고, 도시농업의 미래상을 제시하여 도시농업의 가치를 확산하고자 친환경 도시농업거리를 조성했다.

친환경 도시농업거리 조성의 첫걸음으로 거리 명칭 공모를 진행했고 심사 결과, ‘누구나 도시농업에 참여하고 상상할 수 있는 꿈꾸는 거리’라는 의미의 ‘도시농업 상상거리’가 일상에서 실천하는 도시농업거리 명칭으로 적격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 5월 26일부터 6월 1일까지 7일간 도시농업거리 명칭 공모를 시행한 결과 총 43건이 접수되었다. 그중 3차 심사를 거쳐 최우수작 1건 도시농업 상상거리, 우수작 2건 강동 농마루, 강동 초록빛길이 선정되었다.

확정된 거리 공식 명칭은 ▲로고 ▲통합이미지(CI) ▲안내판 디자인 등 대외적으로 활용될 예정이며, 6월 22일(화) 서울시 최초로 조성되는 도시농업 상상거리 현판 제막식을 할 계획이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많은 구민이 도시농업거리 명칭에 관심을 가져줘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구는 거리 명칭에 걸맞게 생활 속 함께 즐길 수 있는 건강한 도시농업과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규석/기자

동작구, 청년 좋은 집 구하기 정보 지원 사업 추진

동작구가 ‘동작 청년 좋은 집 구하기 정보 지원사업’을 추진해 청년들의 주거복지 실현에 앞장선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1년 서울특별시 청년자율예산 정책과제’ 선정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청년들의 주거 거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문제인식 및 해결의 의견을 공유하는 등 청년의 주거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개선하고자 마련했다.

먼저, 구는 동작 청년 살자리 네트워크에서 활동할 청년 5명을 공개모집한다.

모집대상은 만 19세부터 39세까지 ▲청년 주거에 관심 있으면서 동작구에 주민등록상 주소와 있는 청년 ▲관내 소재 직장(자영업 포함)에 다니고 있는 주거정책 관련 활동가 ▲우리구 소재 대학에서 재학·휴학·졸업을 한 청년 등이다.

선정된 네트워크 위원은 다음달부터 5개월 간 관내 청년친화 주거 정책 개선 간담회와 8월 중 열릴 예정인 청년 주거거처 지원을 위한 설명회에서는 청년들의 주거실태와 사례, 청년 주거환경 개선방안 아이디어 도

출, 주거거래(임대차) 관련에 필요한 정보 등을 논의한다.

또한, 관내 거주 또는 대학교 소속 만 19~39세 청년을 대상으로 동작 청년 살자리 서포터즈 10명도 공모한다.

서포터즈는 7월부터 11월까지 ▲청년 주거정책을 활용해 주거 거래에 성공한 사례 인터뷰 ▲청년들이 살기 좋은 관내 지역 주제별 조사·소개 ▲청년 주거 복지정책 등 다양한 소식을 카드뉴스, 영상, 포스터이미지로 제작해 SNS에 게재한다.

네트워크 또는 서포터즈의 참여를 원하는 청년은 오는 21일까지 담당자 이메일로 신청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일자리정책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아울러, 주거복지정책, 관내 주거거래 관련 궁금한 사항들을 상담·안내 받을 수 있는 온·오프라인 상담창구를 운영해 동작구 청년들이 좋은 집을 구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유소연 일자리정책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들에게 올바른 주거 정보를 제공해 행복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청년의 창의적 활동을 지원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서울특별시구로구, '경단녀' IT분야취업지원 프로그램 마련

교육 후 취업까지 지원... 온라인 플랫폼 창업지원, 뷰티전문가 양성 과정도 운영



서울특별시 구로구가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IT분야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구로구는 “경력단절여성들이 4차산업시대에 필요한 빅데이터 활용, 영상편집, 웹 디자인 등의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IT분야 핵심실무 인재 양

성 프로젝트를 전개한다”고 14일 밝혔다.

IT분야 핵심실무 인재 양성 프로젝트는 초심자와 전공자·경력자 등 수준별 맞춤 교육으로 진행된다. 초심자 과정은 ▲빅데이터 마케팅 전문가(교육시간 320시간) ▲영상콘

텐츠제작자(220시간) ▲웹·앱퍼블리싱 디자이너(200시간)로 이뤄진다. IT 분야에 생소한 이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사용 방법부터 실무 적용까지 교육한다.

전공자·경력자 과정은 SNS마케팅, 데이터라벨러, 이모티콘·굿즈 제작 등 단기간 직무 심화와 멘토링 연계, 포트폴리오 지원, 이력서·자기소개서 컨설팅 등 취업지원 서비스로 구성된다.

구로구는 직업상담사 등으로 구성된 ‘일자리발굴단’을 통해 교육생과 G밸리 기업을 연결해주고 취업까지 알선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구로구는 ‘온라인 플랫폼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내달 5일부터 8월 말까지 8주간 진행되는 프로그램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이해, 포트폴리오 구성, 수익구조

창출 등에 대한 교육과 함께 이미 창업 선배와의 소통 기회도 제공된다.

구로구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이 경력단절여성들에게 사회진출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구로구는 서울한영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 뷰티전문가 양성프로그램도 운영한다. 피부 국가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부터 취업·창업까지 지원한다. 모집대상은 만 19세 이상 여성 20명이며 내달 4일까지 서울한영대 산학협력단(2226-1425)에서 선착순 모집한다. 교육은 7월 5일부터 9월 10일까지 피부 국가자격증 속성 단기과정, 피부 실무과정, 뷰티 강사 과정 등이 진행된다.

김미성/기자

인천 남동구 청년창업지원센터 1기 졸업기업 잇따라 성과 주목

행안부, 전국 대형폐기물 간편배출앱 ‘여기로’ 공식 선정



인천시 남동구 청년창업지원센터가 배출한 청년 기업들이 잇따라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14일 구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지금여기에서 운영하는 대형폐기물 간편 배출시스템 ‘여기로’를 공식 시스템으로 선정하고 올해 안에 전국으로 확대 도입하기로 했다.

㈜지금여기는 남동구 청년창업지원센터 1기 입주기업 출신으로,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성공적으로 졸업해 현재 인천스타트업파크에 자리를 잡았다.

‘여기로’는 모바일을 활용해 대형폐기물 등록부터 수수료 결제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대형폐기물 간편 배출시스템’이다.

㈜지금여기는 2017년 해당 앱 출시 후 2019년 남동구 청년창업지원센터에 입주했으며, 센터 인적·물적 인프라를 활용해 완성도를 높였다.

특히 남동구는 지난해 각 동 행정복지센터 등 22곳에 ‘대형폐기물 스마트 키오스크’를 설치하고 전국 최초로 폐가구 등 대형폐기물 처리를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도 했다.

㈜지금여기 김진경 대표는 “사업 초기 청년창업지원센터에 입주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받고 안정적인

로 개발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이 큰 도움이 됐다.”며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온라인과 같은 존재”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남동구 청년창업지원센터는 지난 2019년 4월 16일 문을 연 지 2년 만에 121명의 일자리 창출과 약 45억 원의 매출실적을 달성했다.

1기 입주기업인 (주)체코의 경우 해양유류쓰레기 회수로부터 아이টে이로 SK이노베이션 ‘SV II 임팩트 파트너링’ 파트너 업체 선정 및 5억원 투자를 유치했다.

반려동물 생활 서비스 전문기업 ‘행복하게’는 인천관광공사 관광벤처기업에 선정됐고, ㈜왓츠더더도 인천관광기업지원센터에 공모를 통해 입주했다.

센터는 1기 기업의 성공을 발판으로 현재는 2기 입주기업 14개를 대상으로 초기 청년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이강호 남동구청장은 “(주)지금여기 등 입주기업의 성과는 남동구 청년 정책의 핵심인 청년창업지원센터의 가능성과 우수성을 보여준 사례”라며 “청년이 꿈꿀 수 있고, 행복한 남동구를 만드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재은/기자

유천호 강화군수, “일상 회복과 지역경제 회복에 전력 다 할 것”

각종 지역 현황 점검, 경로당 개방에 따른 철저한 방역 강조

유천호 강화군수는 14일 영상회의실에서 부군수를 비롯한 국·과장, 직속기관 및 사업소장, 읍·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부회의를 개최하고 각종 지역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보고를 시작으로 상반기 신속집행, 영농교육 추진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에 대해 개선과 보완사항을 공유했다.

특히, 지난 7일부터 개방하기 시작한 경로당의 방역과 운영실태를 보고 받고 경로당의 추가 개방과 소규모 프로그램 운영 등에 대해

논의했다.

현재 관내 경로당 236개소 중 73개소 운영 중이며, 취식 행위 및 외부인 출입은 금지, 출입자 명부 작성 등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하에 운영하고 있다.

유 군수는 “코로나19가 1년 넘게 지속되면서 어르신들의 삶이 위축됐다”며 “철저한 방역으로 경로당 시설을 안전한 여가의 모범 공간으로 만들어 어르신들의 소통 부재에 따른 우울감, 고립감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모든 공직자들이 일상으로의 회복과 지역 경제 회생을 위해 한마음으로 전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종남/기자



부평구립 삼산도서관, ‘우리 동네 이야기꽃 피어라’ 참가자 모집

2021년 공공-작은도서관 협력사업 '우리동네 이야기꽃 피어라'

우리동네 이야기꽃

2021. 07. 07(수) - 09. 08(수), 매주 수요일 10:00 - 12:00 (총 10회)

모집대상: 50대 이상 성인 20명(선착순)

관사: 정은재 (사)한국동화연구협회 인천지회

내용: 동화구연지도사 2급 자격증 과정으로 책놀이 및 마술동화구연 등 그림책을 이용한 다양한 수업내용을 구성

자격검정비용: 자격증 발급비용 6만원(개인부담, 선택과정)

모집인내: 전화접수(꿈광도서관), 2021. 06. 15(화) - 강의 + 실습으로 이루어짐, 강의 80%이상 수료자 자격시험응시 가능 수업료 및 재료비 무료 (단, 교재비 1만원 개인부담)

수업진행: 온라인 ZOOM & 현장수업 (강의 수료 후 주말 강화 개설 및 진행 과정 별도)

수업방식: 온라인 ZOOM

회차	날짜	수업주제	방식
1	7/7	아이들을 사로잡는 손유희와 레크리에이션	온라인 ZOOM
2	7/14	다양한 목소리 표현, 동화구연 스텝교육	
3	7/21	그림책 속 감정표현과 학습	
4	7/28	연말별/작가별 그림책 읽기	
5	8/4	그림책과 책놀이	
6	8/11	이야기 스토리텔링과 종이접기 동화	온라인 ZOOM & 현장수업
7	8/18	스토리가 있는 마술동화	
8	8/25	다양한 구구말놀이와 동화구연	
9	9/1	나이는 동화구연과(그림책 및 동화배제 시연발표)	
10	9/8	수료식 및 재능기부회 위한 조별발표	

수업문의: 꿈광도서관 (070-4129-1739)

부평구립삼산도서관이 15일부터 공공-작은도서관 협력사업 '우리동네 이야기꽃 피어라' 참가자를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공공-작은도서관 협력사업이란 부평구의 독서 문화 발전을 위해 삼산도서관과 지역의 작은도서관 3곳이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다양한 주민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해 교육과 문화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사업은 오는 7월 7일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꿈광도서관에서 50대 이상 베이비부머 세대를 대상으로 '동화구연지도사 2급' 과정을 개설해 그림책을 이용한 책 놀이 및 마술동화 등을 진행한다.

수업은 온라인강의 및 현장실습으로 구성하고, 강의 80% 이상 수료자는 자격시험 응시가 가능하다.

배창섭 부평구립도서관 본부장은 “우리동네 이야기꽃 피어라를 통해서 지역 내 작은도서관과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베이비부머 은퇴 세대들이 사회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사회적 역할에 가치는 두는 공공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 관련 관심 있는 주민은 꿈광도서관에 전화로 접수 후 참여 가능하다.

전순희/기자

인천 중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이자 3% 지원

25억 원 규모 저금리 융자지원으로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 기여

인천 중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12억 원의 특례보증을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중구는 올해 초부터 13억 원의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실시한데 이어 12억원을 추가해 총 25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중구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며 대출금액은 시설개선 자금 최대 3천만 원, 경영자금 2천만 원까지이다. 대출조건은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대출 후 첫 1년은 원리금 상환에 대한 부담이 없다. 또한, 대출 기간인 5년간 대출이자의 3%를 중구에서 지원해주기 때

문에 실제 이자 부담금은 1%대의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특례보증은 대출이 어려웠던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의 소상공인도 연체나 체납 등 대출 제한 사유가 없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및 자세한 문의는 중구청 일자리경제과 또는 인천신용보증재단에서 할 수 있다.

홍인성 구청장은 “이번 특례보증 지원은 지역경제를 이끌어가는 소상공인의 자금난을 해소해주는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지속적인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한 정책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종남/기자



새로운 계양의 시작 '서운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백서' 발간



인천광역시 계양구가 서운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10년의 기록을 담은 '백서'를 발간했다.

2010년 민선 5기 출범과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한 '서운일반산업단지 조성'은 10년간의 노력 끝에 2019년 준공되었다.

서운일반산업단지는 자치구 단위로 조성된 최초의 산업단지로 524,970㎡ 규모에 3,6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민·관 공동개발 방식으로 조성되었

산업단지 사상 유례없는 5:1의 경쟁률로 분양이 완료됐으며 현재 입주율은 80%로 입차기업을 포함해

총 128개의 업체가 입주했다.

계양구는 '서운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백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민들에게 서운일반산업단지 조성 과정을 공개하고 다른 지자체에 산업단지 조성 성공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

박형우 구청장은 “서운일반산업단지의 성공에 이어 계양산업단지와 계양테크노밸리 조성으로 우리 구가 서부수도권 산업 경제의 핵심도시로 성장할 것이며 서운일반산업단지 백서가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는 다른 지역에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최재은/기자

용인시 양지면 교동회관 옥상에 불법 증축된 건축물 수년째 방치



경기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양지1리 교동회관(마을회관)은 지난 2002년 증축된 이래 2012년경 회관 평슬라브 건물 옥상에 약 70㎡ 크기의 샌드위치판넬 구조의 불법 건축물을 무단 증축한 후 00 단체 사무실로 사용하다 수년째 방치되고 있던 불법 증축된 건축물을 철거하지 않고 최근 2년 전부터 일부 인사의 개인사무실로 운영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옥상에 가로 6M 세로 10M의 샌드위치 판넬구조이다. 한편, 수년동안 불법증축된 건축물 인지 모던 마을주민 A씨(여 65세)는 관련내용을 알고 있는듯 "어떻게 불법인지 알면서도 버젓이 개인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개인주택에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으로 철거명령 또는 벌금을 물리면서 공공건물에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도 즉시 철거해야 되는데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처인구 양지면 양지리 461-1외 필지상 건축된 교동회관은 지상2층 철근콘크리트 평슬라브 구조로 2000년대지 471㎡ 연면적 286㎡ A동 1층 마을회관, 2층 노인정을 신축하고 부속 건물 창고 28.09㎡를 신축한후, 2002년, 기존회관건물과 맞대어 2층 콘크리트 평슬라브 구조로 확충하고, 기존 A동 2층 258㎡, 증축 2층 소매점사무소 210.08㎡ 기존 B동 창고 28.09㎡ 증축하여 사용해왔다.

행정관청의 불법 증축된 건축물에 대해서 수년째 방치된 사유와 그간 항공사진등 분석에서 누락된 이유에 대해서도 감사과의 철저한 조사와 행정 조치 및 강제철거를 수반해야 할 것이다.

최근수기자

경기도, 기획부동산지분쪼개기 부당이익만 26억원. 특별공급 부정청약자도 무더기 적발

친인척 명의로 토지를 매입한 후 지분쪼개기 방식으로 부당이익을 취한 기획부동산과 지난해 과천시지정보타운 분양 아파트 부정청약자 등 불법 부동산투기자 178명이 경기도 단속에 달미를 잡혔다. 이들이 얻은 불로소득은 1.434억 원에 달한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4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기획부동산 등 부동산 불법 투기 기획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 단장은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기획부동산의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와 지난해 청약경쟁률 245:1을 기록한 과천시지정보타운 분양 아파트 부정청약 등 부동산거래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기획수사를 실시해 178명을 적발했다"면서 "이 중 17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79명은 형사입건했으며, 82명은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주요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종합설계 주식회사의 대표 A, B는 분양행위, 부동산건설팀 등의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한 후 친인척 5명의 명의로 시흥시 및 평택시 소재 토지 총 11필지, 1만1,426㎡를 약 18억 원에 매입했다.

이후 이들은 주부 및 미취업 청년 등 30여명의 상담사를 고용한 후 '주변에 카지노 등 개발호재가 많아 시세차익이 예상된다'는 거짓 홍보를 하면서 상담사의 친구와 지인 등 불특정 다수인 135명에게 지분쪼개기 방식으로 7개월 사이에 시세보다 높

은 44억 원에 토지를 매도해 총 26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했다. 과천시지정보타운 아파트 부정청약도 176명 적발됐다.

C는 장애인인 아버지가 의왕시에 소재한 요양원에 입소하고 있는데 장애인 특별공급 중 거주자 가점 15점을 더 받기 위해 과천시였던 아버지의 기존 주거지 계약기간을 연장하면서 매달 임대료를 지급하는 등 증거자료를 준비해 청약에 당첨됐다. D는 과천시지정보타운 아파트 중 일반공급보다 경쟁률(일반공급 458:1, 특별공급 95:1)이 낮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으로 분양받기 위해 전북 익산시에 소재한 요양원에 거주 중인 외할머니를 과천시에 세대원으로 전입 신고해 아파트를 공급받았다.

E는 성남시에 거주하면서 과천시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물량을 분양받기 위해 과천시 소재 친척 집에 세대주로 위장 전입한 후 과천시지정보타운 생애 최초 특별공급에 청약했다. 그 결과 과천시 1년 이상 실제 거주자에게만 주어지는 우선공급분 30%에 당첨됐다.

해당 아파트의 프리미엄이 현재 7억~8억 원대에 형성돼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런 방식으로 176명이 생긴 부당이익은 1천408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도는 보고 있다.

현행 법령 상 무자격·무등록 부동산 중개행위자와 부정청약자는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며, 부정청약

부동산 불법 투기 주요 사례

적발 178명(검찰송치 17명, 형사입건 79명, 수사중 82명)

사례1 | 기획부동산의 무자격·무등록 중개로 시세차익 및 중개보수 부당이익 편취

사례2 | 허위 임대차계약으로 장애인 특별공급 가점 취득 후 부정당첨

사례3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청약자격을 거짓 취득한 부정당첨

사례4 | 건설지역 거주자 우선 공급분 청약의 위장전입 후 부정당첨

▶ 처벌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자는 해당 분양권이 취소되고, 위약금으로 계약금액의 10%를 시행사에 지불해야 한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부동산 불로소득 근절을 위해 지난해

청약경쟁률이 높았던 아파트를 대상으로 부정청약 수사를 확대하고, 특히 기획부동산의 지분 쪼개기 방식의 중개행위에 대해 전면 수사를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최만식기자

양산시, 불법 주·정차 단속문자 알림서비스 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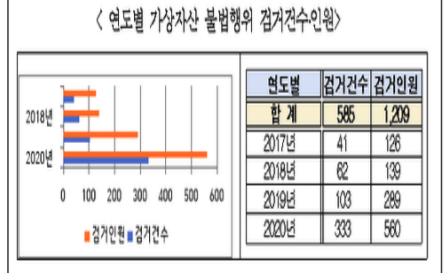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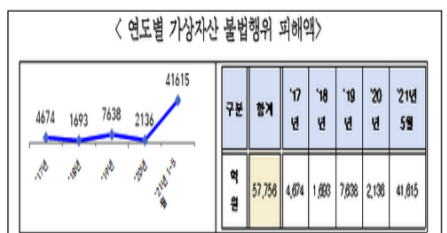
양산시는 7월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서비스'를 제공한다. '불법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서비스'는 신청자에 한해 불법 주·정차 차량이 단속 카메라에 1차 단속 되었을 때 휴대전화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다.



아니며 서비스 수신 여부와 상관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산시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서비스 시행으로 불법 주·정차로 인한 민원이 줄어들고 교통흐름이 원활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남궁영기기자

가상자산 관련 유사수신·사기 등 총 62건, 187명 단속



였다. 세부 유형별로는, 가상자산을 범죄 수단인 유사수신·다단계 사기 48건(80%), 가상자산거래소 횡령 등 불법행위 5건(8%), 기타 가상자산 관련 사기 등 7건(12%)이 단속되었다.

또한, '가상자산 탈취 등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사이버수사국)'는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건·4명을 검거하였고, 현재 45건을 수사 중이다. 경찰이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하게 된 배경에는 최근 가상자산 투자 열풍으로 거래참여자가 580여만 명(2021. 4. 기준, 금융위)에 이르는 등 대폭 증가, 가상자산 가격의 급격한 변동 등에 따라 가상자산과 관련된 유사수신, 투자사기 등 범죄로 인한 서민경제 피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가상자산 관련 연도별 단속 건수는 2017년 41건(검거 126명)에서 2020년 333건(검거 560명)으로 약 7.1배 증가하였다. 연간 피해액도 2017년부터 최근 4년간 평균 4.035억 원에서 2021년 5월 말 기준 4조 1,615억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최광수기자

관악구, 수거와 단속을 철저히 당근 `채찍 전략`생활폐기물 배출 `수거 개선방안 마련`

관악구는 깨끗한 청정삶터 관악 조성을 위해 생활쓰레기 수거를 철저히 하는 대신 단속도 철저히 하는 당근과 채찍 전략을 내세운 생활폐기물 배출·수거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박준희 구정장은 "주민들께서 먼저 분리배출을 생활화하고 무단투기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며 구는 우선 모든 주민의 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대대적인 홍보를 펼치고 있다.

2020년 관악구 정기 여론조사 결과 생활폐기물 배출 금지일(토요일)을 인지하는 주민이 48.7%로 절반 정도에 이르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난 6월부터 현수막, 리플릿, 전광판, SNS 뉴미디어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모든 주민이 생활폐기물 분리·배출에 대하여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배출요일(일·금, 토요일 제외), 배출시간(주거지역 18시~24시, 가로지역 22시~01시, 배출장소(내 집·내 점포 앞) ▲착각하기 쉬운 일반·음식물쓰레기 구분 ▲재활용품 분리배출 방법 등을 쉽게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들이 쓰레기를

내용은 날이 헛갈려 거리에 방치하는 일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무단투기 단속 사각지대인 주말 남부순환로, 관악로, 봉천로 등 관내 주요 가로변을 중심으로 6월 한달 간 취약 지역 및 시간대에 무단투기보안관 특별근무를 실시하여 집중 계도 및 단속을 추진한다.

또한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에도 시정되지 않는 상습무단투기 상가 및 주택을 선정하여 상가업주, 주택 거주자 및 소유자 맞춤형 계도를 통한 특별 관리로 실질적 변화를 유도한다.

가로청소 환경미화원 59명과 동주민센터 공공·희망·자활근로 청소년력을 활용하여 상습무단투기 주요 대로변 상가와 주택을 중심으로 수시 순찰 확인 및 계도, 주변 쓰레기 정비 등을 통해 청정삶터 관악을 만들기 위한 강력한 행정력을 펼친다.

특히 주말 주요도로 재활용품 위주 무단투기 쓰레기 수거를 위해 직영기동반을 2개 팀에서 3개 팀으로 확대 운영하고, 7개 청소대행업체 구역별 기동반을 신규 편성하여 쓰레기 방지에 따른 도시미관 환경 개선에 주력한다.

구는 현재 다양한 색깔의 재활용



봉투로 인해 올바르게 배출하더라도 무단투기 폐기물과 구별이 어려워 도시경관이 저해되고, 생활폐기물 혼합배출로 인한 재활용률 감소를 개선하기 위해 오는 7월부터 '재활용품 전용봉투' 제작·배포 시범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우선 봉천·신림권역 각 1개동을 선정하여 분리배출 취약지역인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재활용품 전용봉투(3종)' 제작·배포하여 투병페트병·비닐·기타 재활용품품목별 배출을 유도하고 향후 성과분석을 통해 확대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무단투기 상습지역에 이동형 CCTV 설치, 다목적 CCTV를 활용한 통합관제센터 관계 강화, 로고젝터 및 첨단 스마트 경고판 운영 등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선 방위적 시스템을 가동한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소비 증가로 생활폐기물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며, 올바른 생활폐기물 배출은 나부터 실천해 살기 좋고 깨끗한 관악 만들기에 주민 모두가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성원기자

군산시, 분양권 불법거래 특별 합동단속 끝난 게 아니다.



군산시는 오는 25일까지 군산 호수공원 아이파크 분양에 따른 권본주택 주변을 대상으로 분양권 불법거래 특별 합동단속반(군산시, 군산경찰서,

군산세무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군산시지회)을 본격적으로 가동하며 대대적인 현장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분양권 정식계약 체결 이전인 당첨자에게 우등(프리미엄)을 미끼로 이뤄지는 불법거래 행위(당첨자가 접근해 거래 흥정, 명함과 전단지 배포, 무등록·무자격자인 일명 뺏다방)가 집중 단속 대상이며 당첨권 불법 중개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실수요자 등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추진된다.

이번 단속기간에도 특별 합동단속을 통해 불법적인 행위가 발견될 시 현장에서 바로 경찰과 조사함과 동시에 위법자에 대해 고발조치 할 예정이며, 현장뿐만 아니라 인터넷(군산시닷컴, 부동산카페, 블로그 등)을 통해 가격담합과 분양권 불법 전매행위 등을 경찰과 합동으로 집중 조사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원칙을 적용하고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여 불법적인 가격 상승으로 시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철저한 단속을 하겠다"며, "집값 안정으로 내집 마련의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불법 행위자에 대해 군산시나 군산경찰서에 직접 신고하는 시민정신을 발휘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3월 6일부터 3월 19일까지 2주간에 걸쳐 디오션시티 다상차분양 시 특별 합동단속을 실시했으며 단속 중에 당첨자들을 상대로 분양권을 알선하는 외지인 뺏다방으로 의심되는 자를 경찰과 공조, 적발해 현재 조사가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태기자

안산시, 1년 반 만에 공모사업 국도비 확보액 630억 원 돌파

지난해부터 올 5월 말까지 147건 선정 국도비 631억 원 확보



안산시가 지난해부터 지난해까지 정부와 경기도가 추진하는 공모사업 147건에 선정돼 국도비 631억 원을 확보한 것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시는 복지·안전·교통·체육·환경·교육·관광·산업 등 시민의 삶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상급기관 공모사업에 적극 추진하고 있다.

14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지난해 31일까지 공모사업 147건(중앙정부 61건·경기도 81건·기타 5건)에 선정돼 국도비 631억 원을 포함해 모두 1천6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선정된 주요사업은 ▲새로운 경기 정책공모 2021, 경기 First 공모(2021.5) 도비 60억 원 ▲반월시하스 마트그린산단 사업 다각화지원 플랫폼 사업(2021.3) 국비 130억 ▲힐링케어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데이터 기반 실증지원 플랫폼 구축(2020.7) 국도비 100억 원 등이다.

경기 정책공모전에 시는 생존수영 체험 전용수영장과 시화호 뱃길, 경기도 해양안전체험관을 연계한 '소

중한 생명, 즐거운 바다 경기 AQUA LIFE 누리 사업'을 신청해 우수한 결과를 얻었다.

이 사업은 내년 5월 호수공원 야외 수영장에 설치되는 수영장을 시작으로 시화호 뱃길, 해양안전체험관을 하루 동안 체험하며 생명과 바다를 지키고, 해양자원의 소중함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공모 선정으로 추진되는 힐링케어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데이터 기반 실증지원 플랫폼 구축사업은 지난해 12월 참여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올 5월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에 '힐링케어 의료기기 실증센터'가 설립되는 등 본격적으로 추진 중이다.

시는 올 하반기에도 각종 공모사업에 참여할 계획으로, 국회의원 및 도의원 등 지역정치권은 물론 시민과 함께 힘을 모아 공모전 선정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 나간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시민의 삶과 밀접한 분야에 국도비가 원활히 투입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력해 최선의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정부기자

안양시민의 오랜 숙원인 화장장도 시설건립이 마침내 눈앞에 다가왔다. 안양시는 화성 함백산 추모공원이 드디어 오는 7월 1일 개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최대호 안양시장이 민선5기 시절 이던 지난 2011년 7월 화성시에 처음으로 제안, 6개 지자체(안양·화성·부천·안산·광명·시흥시) 공동건립을 추진한 고품격 장사시설이 문을 열게 된 것이다.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은 화성시 매송면 속곡1리 산12-5번지 일원 30만㎡부지에 건축면적 9163㎡규모로 조성된 종합장사시설이다. 화장시설 13기와 봉안시설 2만6514기, 자연장지 5300기, 장례식장 8실 그리고 주차장과 공원 등을 갖추고 있다.

사업비는 6개 지자체가 총 1714억 원을 투자했는데 인구비율에 따라 안양시는 230억원을 부담했다.

안양시민에게 있어 함백산추모공원은 우수한 접근성, 이용의 편리성,

저렴한 이용료 등 3대 장점을 보유하고 있다. 안양에서 거리상 30분내 이동이 가능하며, 공동건립에 참여한 지자체 소속 주민 우선예약과 원스톱 장례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특히 화장시설은 16만원, 봉안시설은 50만원으로 책정, 시간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부담이 크게 완화됐다. 따라서 6개 시 주민들은 편리하고 저렴하게 장례를 치를 수 있게 됐다.

안양시는 개원에 맞춰 화장료의 60%를 지원해오던 화장 장려금 제도를 폐지하고, 관련 조례(안양시 장사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개정했다. 다만 추모공원 개원 전 발생한 화장비용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해 장려금을 지원한다.

함백산추모공원이 건립되기 까지 안양시는 적지 않은 시련을 겪었다.

최대호 시장이 2011년 부지확보가 가능한 화성시측에 최초로 제안, 2013년 5월 인근 8개 지자체끼리

MOU를 체결했지만 민선 6기 들어 시가 사업 참여를 포기하는 위기에 처했다. 이후 최 시장이 민선7기 시장에 부임해 사업에 다시 뛰어들면서 최종 열매를 맺게 됐다. 안양 등 6개 지역 주민들로서는 큰 선물을 안은 셈이다.

특히 기피시설로 여겨지는 장사시설을 6개 지자체가 손잡고 추진해 일궈낸 전국적으로도 모범적인 협업사례가 된다.

최대호 시장은 "자체화장시설이 없어 안양시민들은 큰 비용을 들여가면서 타 지역 시설을 이용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이제 그런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한편 개장식은 6월 30일 오후 2시 최대호 시장을 비롯한 6개 지자체장과 국회의원, 도·시의원 등이 참석하는 가운데 현장에서 열릴 예정이다.

원종균기자

안양시민을 위한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7.1. 개원

안양시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개원 안내

개원일: 2021년 7월 1일 (화)

주요 시설: 화장시설 13기, 봉안시설 2만 6514기, 자연장지 5300기, 장례식장 8실, 공원 등

이용료: 화장 16만 원, 봉안 50만 원

예약: 화성시 홈페이지 또는 전화 예약

문의: 031-240-9200 / 031-940-9071

김포도시관리공사, '책의 숲에서 더불어 사는 지혜와 희망 찾기' 운영

김포도시관리공사는 경기도청에서 주최하고, 한국독서지도연구회 협동조합이 주관하는 '2021년 정보취약계층 독서문화프로그램' 공모사업을 7월 6일부터 운영한다.

동진도서관은 경기도에서 경제적·신체적 제약으로 책을 접하기 어려운 도민을 위해 진행되는 '정보취약계층 찾아가는 독서문화프로그램' 감사과건기관으로 50곳의 기관 중 하나로 선정되었다.

동진도서관에서는 '책의 숲에서 더불어 사는 지혜와 희망 찾기' 치유형 독서활동을 운영할 예정이며, 김포다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속 회원 장애인·비장애인을 초청하여 총 12차 과정으로 진행된다.

한국독서지도연구회 임은정 강사와 함께 7월 6일부터 9월 28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1시30분~3시)에 감동과 재미, 성찰이 있는 독서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며, 8월 17일 (화)에는 박민근작가(심리치료사)를 초청하여 작가 저서 "당신이 이기지 못할 상처는 없다"를 주제로 수강생들의 행복과 활기찬 삶의 터전에 적용할 수 있는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도서관 관계자는 "이번 강좌를 통해 도서관에 구비되어 있는 장애인 대체도서(점자·점자라벨도서, 큰글자도서, 소리책)의 이용이 향상되기를 바라며, 독서정보서비스 사각지대 해소와 장애인의 자존감 향상 및 지역사회 일원으로 스며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정동희기자

책의 숲에서 더불어 사는 지혜와 희망 찾기

2021. 07.06.~09.28(화) 13:30~15:00

대상: 장애인, 비장애인 10명

내용	연차	장소
중간계정하기 / 자유의예매기공유 / 감상부담 (강사: 임은정)	2021.07.06.~09.28. 매주 화요일 14:30분~3시	동진도서관 2층 전실
박민근작가 초청 (당신이 이기지 못할 상처는 없다)	2021.08.17(화) 오후 14:30분~3시	김포다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

문의: 070-4912-1848

부천시, 기아오토큐 중동점, 4년째 부천 관내 사회복지시설 차량 무상수리 지원



기아오토큐 중동점이 사회복지시설의 차량에 대한 무상수리지원을 통해 안전한 사회복지시설전을 돕고 있다.

특히, 부천시사회복지협의회와 협약을 통해 정기적으로 매년 20~30대의 차량을 점검하고 필요한 수리를 지원하여 사회복지시설의 안전과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지원에 도움을 주고 있다.

2018년부터 진행된 '기아오토큐 중동점-차량 수리 후원사업'은 부천시사회복지협의회 소속의 부천관내 사회복지시설 차량을 대상으로 엔진오일, 브레이크 오일, 필터교체 등 차량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수리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아오토큐 중동점은 4년간 총 82대의 차량을 점검·수리해왔으며, 올해도 5월 25일부터 7월 7일까지 경기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등 총 20대 기관차량을 꼼꼼히 체크하고 수리에

필요한 지원을 진행해 나가고 있다. 부천시사회복지협의회 최종복 회장은 "차량은 생명과도 직결되기에 차량수리로 사회복지시설의 안전한 환경조성에 도움을 주는 것은 결국 우리 이웃들에게 전달되고 있다. 이러한 기아오토큐 중동점의 후원사업은 지역복지에 큰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이에 기아오토큐 중동점 홍진표 대표는 "지역의 필요한 곳에 도움을 줄 수 있어서 기쁘고 앞으로 더 다양하고 많은 후원사업을 함께 하고 싶다"고 전했다.

심재성 복지정책과장은 "지역에서 놓칠 수 있는 아주 작은 것까지 신경 쓰고, 또 가장 잘할 수 있는 재능과 기술을 지역사회에 환원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세상을 실현하는 기아오토큐 중동점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전순희기자

하남시 미사2동, '알콜중독 자조모임(AA) 집단치유상담' 운영

혼자 힘으로 중독을 벗어나기 힘든 시민에게 희망이 되는 공동체(Fellowship)

하남시 미사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시 최초로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 자조모임(AA)과 집단치유상담'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AA는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Acoholics Anonymous)의 줄임말로, 알코올 중독에서 먼저 벗어난 사람들이 술을 끊겠다는 사람들을 돕는 자조모임이다.

지난 10일부터 시작된 AA와 집단상담은 오는 7월 15일까지 미사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매주 목요일마다 진행된다. 알코올 중독 치료를 원하는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자의 신분은 공개되지 않는다.

이다경 미사2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장은 "하남시 AA모임은 동기강화에 탁월한 조성민 한국중독심리학회장(중독심리상담사)을 초빙해 집단심리상담을 운영함으로써 단주성공의 가능성을 높였다"고 전했다.

강성학 미사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가정체로 심리적 고통을 경험하는 분들이 상담을 통해 삶의 활기를 되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근수기자

알코올 중독 자조모임(AA) 집단치유상담

조성민 박사님의 마음상담

알코올 중독 자조모임(AA)과 집단치유상담

모든 상담은 익명(AA)으로 진행되며 외부로 유출되지 않습니다.

대상: 술을 끊겠다는 열망이 있는 분

일시: 2021년 6월 10일~ (매주 목요일)

시간: 1부 10시-11시 (AA 성공경험) 2부 11시-12시30분 (마음상담)

장소: 미사2동 행정복지센터 (2층 프로그램실)

문의: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031-790-6235

평택시 팽성청소년문화의집, 통북시장 영어지도 제작

'어서와 시장은 처음이지?' 프로그램 진행

평택시 팽성청소년문화의집은 통북시장 영어지도제작 활동 '어서와 시장은 처음이지?'를 진행했다.

'어서와 시장은 처음이지?'는 청소년들의 시각으로 통북시장을 재해석해 한·외국인 청소년들이 함께 통북시장 탐방을 통해 영어지도 제작하는 지역사회 참여 활동이다.

통북시장을 처음 방문하는 외국인들을 위해 시장 내 먹거리, 편의시설, 필요 표현 등의 정보가 기입된 리플릿을 휴대하기 편리하도록 제작할 예정이다. 또한 완성된 영어지도는 통북시장 고객센터 및 외국인 학교에 비치될 예정이며, 외국인들의 관광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장연우(한광여고3)는 "우리가 만들게 되는 영어지도가 외국인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조재혁(청담중3)은 "외국인 청소년들과 함께 통북시장을 탐방하며 즐거운 추억을 만든 것 같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프로그램 담당자 최원익 청소년지도사는 "한·외국



인 청소년들이 함께 만드는 영어지도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뜻깊은 추억을 만들어 주고 싶다"라고 전했다.

팽성청소년문화의집 활동은 발원 검사 및 손소독으로 코로나19 방역 절차를 거친 뒤에 안전하게 진행됐으며,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체험활동을 제공하고 민주시민·인성교실 등 청소년들이 지역의 미래 주역으

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관련된 내용은 평택 원클릭, 꿈길 사이트에 등록돼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문화의집 SNS(네이버 밴드, 블로그, 페이스북)에서 확인할 수 있고, 프로그램 관련 문의 사항은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김남주기자

박승원 광명시장, “재건축·재개발 공사현장 철저한 안전관리” 당부



박승원 광명시장은 14일 오전 긴급회의를 열고 “지난 주 광주광역시 철거현장 건물붕괴로 소중한 시민이 목숨을 잃고 충상을 입어 정말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우리 광명시에도 현재 대규모 공사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현재 광명시 여러 곳에서 동시에 철거작업이 진행돼 시민의 불안감이 더욱 크다. 공사장 주변에 시민의 안전을 해치는 위험한 곳은 없는지 재차 확인하고 버스정류장 등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이 있으면 가능한 이전하고 이전이 불가능한 경우는 최대한 안전 조치 할 것”을 재차 당부했다.

광명시는 지난 주 광주광역시 학동 철거 현장 건물 붕괴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공사현장을 재점검하기 위해 관내 재건축·재개발 현장 해체·철거 작업을 전면 중단하고 관련 전문가와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광명시에는 현재 11개 구역(광명 1,2,4,5,9,10,11,12,14,15,16구역)에서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3개

단지(철산7단지, 8·9단지, 10·11단지)는 철거 후 공사가 진행 중이고, 철산 8·9단지는 이주완료 후 가설울타리를 설치 중이며, 10·11단지는 이주 중이다.

2·14·15·16구역은 철거를 마쳤으며 1·4·5·10구역은 철거가 진행 중이다. 9·11·12구역은 2022년 하반기와 2023년 이후 철거를 앞두고 있다.

또한 재건축 지역인 철산7단지는 철거 후 공사가 진행 중이고, 철산 8·9단지는 이주완료 후 가설울타리를 설치 중이며, 10·11단지는 이주 중이다.

광명시는 관련전문가와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감리자와 조함관계자들과 철거 공법을 재확인해 위험 사항이 없는지 철저히 확인한 후 철거작업을 재개할 계획이다.

전순희기자

의정부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 본격 운영



의정부시는 미래까지 상승 동력 마련과 도시 혁신성장을 위해 스마트도시 핵심 기반인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사업을 완료하고 6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은 도시안전망 기초시스템 마련을 위해 2020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 선정으로 지난해 12월 착수해 올해 5월 사업을 완료했다.

의정부시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으로 도시에서 발생하는 재난 및 치안 상황 대응 역량 확대와 안전활동 수행 주체들의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데이터 연계 스마트 서비스를 제공해 신속한 능동적인 도시관리 기반을 강화했다.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경찰·소방통신망과 연계해 CCTV통합관제센터에서 운영하던 3천250여 대의 영상장치 등을 활용해 사건·사고 발생 지점의 CCTV실시간 영상 및 위치정보, 교통소통정보 등을 출동 차량 및 지휘센터에 제공해 신속한 초동 조치와 인명구조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의정부시가 운영하는 재난상황실 정보자원과 상호연계 있는 데이터를 공유해 신속하고 다각적인 상황판단과 대응 의사결정, 피해복구 활동을 가능하게 했다.

아울러 지역 내 방범·방재, 교통 등 분야별 정보자원을 단일플랫폼에서 운영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해 비용과 인력 운영의 한계를 극복하고 스마트 서비스 효율성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의정부시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에서 제공되는 도시안전망 표준서비스 외에도 특화서비스를 확대 구축했다.

첨단기술을 적용한 다목적 드론 2기를 도입해 위험시설 및 지역 예찰활동과 상황 발생 시 연계 영상정보를 활용해 입체적인 스마트 도시관리 여건을 마련했다.

또한, 한강홍수통제소와 의정부시 재난관리시스템과 연동해 상류 수위 정보 및 기상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하고, 주요 하

천 수위 센서를 활용해 시내 전광판에 예·경고 안내를 자동으로 발송하게 해 시민 안전관리에 활용하는 스마트 하천관리 서비스를 구축했다.

아울러 국민안전처 국가재난관리시스템, 공공데이터, 생활안전지도 등 각종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 및 연계 표출함으로써 도시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의사결정 지원서비스를 구축했다.

특히 여성 대상 범죄 등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해 스마트폰 안심귀가 앱을 도입해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과 연동해 보다 안전한 이동환경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관내 사패산 정상 등 고지대에 고화질 CCTV를 설치하고 이를 활용한 원거리 도시관제 및 상황대응 능력을 향상시켰다.

의정부시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을 안전분야 뿐만 아니라 교통, 복지, 도시재생 등 다양한 분야로 서비스를 확대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유기체적 스마트도시 구현을 위한 핵심 인프라로 활용에 나갈 방침이다.

도시성장 단계별 스마트도시 전략 수립과 도시가치를 높이는 지역별 맞춤형 서비스 적용으로 균형 있는 스마트도시를 구축하고 도시 여건 변화에 신속한 대응과 변화를 선도할 수 있게 되었다.

의정부시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활용도와 효용성 향상을 위해 관계부서 및 유관기관 등과 연대해 협력을 구성하고 정기적인 협의회를 개최해 도시안전망 및 신규 스마트 서비스 성과분석과 의견수렴을 수집해 스마트 도시 확산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안병호 의정부시장은 “의정부시는 스마트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 도시 물리 공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사람 중심의 스마트도시를 구축해 생활공간의 수평적 공유체계를 확보하고 시민의 일상을 바꾸는 혁신 플랫폼으로써 스마트도시 구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영기기자

안성시, 2021 한길나래 멘토링 실시

국내 최초 직업중점 특수교육기관인 한길학교는 지역사회 협력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메르세데스 벤츠 한성자동차 안전전시장과 함께하는 2021 한길나래 멘토링 3차 활동을 지난 10일 실시했다고 밝혔다.

한길나래 멘토링은 한성자동차 안전전시장 직원들과 한길학교의 학생들이 1:1 멘토-멘티를 맺고 직업에 대한 꿈을 이야기하는 진로탐색 프로그램으로 지난 2018년부터 4년째 이어져 오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함께 키우는 꿈밭꽃밭’이란 주제로 실시된 이번 한길나래 멘토링은 지난 4월과 5월에 이어 올해 3번째로 진행되었다. 한길학교 학생들(멘티)과 한성자동차 안전전시장 직원(멘토)들은 함께 협력하여 테라리움을 만들었으며, 완성된 테라리움을 멘티들이 멘토들에게 선물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학생들이 직원들에게 화분을 심고 관리하는 기술을 직접 설명하고 알려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이번 한길나래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한길학교 학생들은 모범이 되는 세계 일류 기업의 직업인 모습을 보고 올바른 직업 생활과 태도 및 인생관을 배우며, 건강한 직업관 형성과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성자동차 안전전시장 이영설 지



점장은 “한길나래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하여 새로 입사한 직원들의 장애인식 개선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한길학교 학생들이 좋은 멘토가 되어 직업인으로서의 모범을 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임직원들에게도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앞으로도 한길학교의 멘토링 활동이 학생들은 물론 우리 한성자동차 안전전시장 임직원 모두가 성장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행사에 참여한 한성자동차 안전전시장 김용구 주임은 “멘티 학생들과 함께 테라리움을 만들

며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뜻깊은 시간이었다. 선배 직업인으로서 좋은 모습을 보여야겠다는 책임감과 더불어 다음 만날 때 더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보다 준비된 모습을 갖추고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한길학교와 한성자동차 안전전시장은 한길나래 멘토링 활동을 바탕으로 지난 3월 업무 협약(mou)을 체결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교육적 자원을 활용한 지역사회 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한 지속적인 협력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최근수기자

포천시, 새로운 주소정보 활용 사업 추진

6월 9일부터 ‘도로명주소법’이 전부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주소정보 활용 촉진을 위해 ‘포천시 주소정보 등 주소정보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버스 및 택시 정류장, 도시공원 등 각종 시설물이나 공터에 사물주소를 부여하여 주소 시각자대를 없애고, 공동주택이 아닌 건물뿐 아니라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에도 입주민의 생활 편의를 위하여 상세주소 부여 신청이 가능해졌다.

또한, 자주 사용하는 길임에도 도로명이 부여되지 않아 불편했던 도로에 시민이 직접 도로명 부여 신청이 가능해 주소정보 활용이 편리해진다.

이밖에도 도로명주소 변경으로 각종 공부에 등록된 주소정정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도로명주소 부여·변경 등에 대한 사항을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면 민원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해당 기관이 직접 주소를 정정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소정보 활용 촉진을 위해 앞장 설 것이며, 확대 시행된 도로명주소 제도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주소정보시설을 설치하는 등 적극 홍보에 나서겠다.”라고 밝혔다.

정동희기자



경상북도 GYEONGSANGBUK-DO

경북 동촌체험휴양마을 美에 반하다

'영주시재난안전대책본부 500일'...일상회복 전략 고심

촘촘한 방역체계 구축... '재난컨트롤타워 역할 철저히 수행'

코로나19 대응을 총괄하는 영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재대본)가 가동된 지 지난 13일 정확히 500일째를 맞았다. 주말과 휴일도 없이 24시간 쉬 없이 달려왔다.

재대본은 범시민 방역 컨트롤 타워로서 코로나19 종식을 목표로 지난해 1월31일부터 현재까지 500일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점검회의를 열었다.

매일 오전 8시30분, 11개 실무반과 7개 사회적 거리두기 추진 TF팀은 중앙재난대책본부가 주관하는 영상회의를 통해 발생 현황을 점검하고 방역대책을 수립했다.

발병 초기와 비교하면 체계적으로 코로나19 대응이 가능해졌고, 전시민 대상 백신접종률도 1차 접종기준 36%가 넘었다는 낭보도 이어지고 있다.

장욱현 본부장은 "재대본 체제를 가동한지 정확히 500일을 넘겼다"며 "여러 차례 확산의 위기 속에 일상의 불편과 희생을 감수하며, 방역에 동참해주신 시민 여러분 덕분에 한 고비 한 고비 극복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영주시 코로나 대응은 재난안전대책본부 중심으로]

영주시 재대본은 500일 동안 매일 영상회의를 통해 △분야별 방역 대응책 마련·시행 △환자 발생 및 사망 감시 △역학조사·진단·검사·환자 및 접촉자 이송 및 관리 △백신접종 및



예약현황 관리 △진료병원과 방역물자 관리 △노인·어린이·외국인 등과 같은 안전취약계층 격리 시 지원책 마련 △감염병 정보 의료기관 공유 및 주민 홍보 등의 역할을 수행했다. 영주시 누적 확진자수는 13일 기준 89명으로 사망자는 없다. 5만9500여 명의 시민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았고 1200여명이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자가격리를 들어갔다. 793명의 해외입국자 철저히 관리해 해외유입에 의한 지역사회 감염전파 차단에 총력을 기울였다. 유흥시설 등 3525개 중점관리시설을 매일매일 점검해 코로나 확산을 예방했다. [지금까지 방역에 집중...이제 백신에 몰두할 때]

영주시재대본은 오는 11월 집단면역 형성을 위해 시보건소, 예방접종센터, 의료기관 등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2월 강성의 부시장을 단장으로 2개반 5개팀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단'을 구성하고 영주시의사회 등 10개 지역의료기관이 참여한 예방접종 지역협의체도 발족해 신속하고 안전한 예방접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13일 기준 접종대상 8만9561명 중 1차접종률은 36.7%, 2차접종률은 8%를 기록하고 있다. 만60세~74세 예방접종은 82%의 예약률을 보였으며 접종률은 65%를 넘어섰다.

제15회 경상북도 여성상 후보자... 추천받는다.

경상북도는 양성평등에 대한 도민의 관심 제고와 확산을 위해 '제15회 경상북도 여성상' 후보자를 오는 7월 9일까지 추천 접수한다고 밝혔다.

경상북도 여성상은 지난 1998년 '장한 여성상'으로 시작하여, 2007년 '경상북도 여성상'으로 명칭을 변경 매년 경북 여성을 위해 헌신한 숨은 공로자를 발굴 포상하여 지난해까지 총 100명의 수상자를 배출하였다.

선발 분야는 올해의 경북여성, 양성평등, 여성복지 등 3개 부문으로, 후보자 추천은 도내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도민 중 각 분야별 공적이 뚜렷한 자를, 시장·군수 및 도 단위 기관·단체장이 부문별로 1명 이내로 추천 할 수 있다.

올해의 경북여성 분야는 정치·경제·사회·교육 등 사회 각 분야에서 탁월한 창의력과 재능을 발휘하여 경북을 빛내거나 경북여성발전에 크게 기여함으로써 시대를 앞서가는 강한 여성이어야 한다.

양성평등 분야는 가정과 사회에서 성차별적인 의식과 관행을 개선하여 양성평등문화 확산 및 정착에 기여한 자를 선발한다. 여성복지 분야는 여성의 복지증진, 능력개발, 여성단체 활성화 및 도정 발전에 기여한 자를 선발한다.

후보자 제외대상은 동일 공적으로 최근 3년 이내 도지사 표창을 수상하였거나,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기타 수상자로 선정되기 곤란한 흠결이 있는 자이다.

추천서 접수는 도청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서식을 이용하여 거주지 시·군청 '경북 여성상'업무담당부서로 제출하고, 해당 시군에서는 자체공직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7월 9일까지 경북도로 접수하게 된다.

수상자 결정은 신청서 접수 후 관련 서류 검토 및 현지실사 확인을 거쳐 경북도 여성상 공직심사위원회에서 후보자의 공적내용과 사회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결정하며, 시상식은 오는 9월 양성평등주간 기념 행사시 있을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제14회 경상북도 여성상'에서는 이옥비(사)이옥사추모사업회 상임이사가 각종 강연과 행사를 통해 독립운동가 여성가족의 공로를 재조명하여 경북여성의 민족정신과 항일독립운동 성지로서의 경북을 널리 알린 공적을 인정받아 '올해의 경북여성'으로 선정된 바 있다.

김세기기자

경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직업교육훈련 '직업상담사 실무향상' 수료식 열어



경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지난 11일 센터 3층 교육장에서 직업상담사 취업을 희망하는 경력단절여성

1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직업상담사 실무향상' 직업교육훈련 수료식을 열었다.

한반식기자

이번 교육과정은 직업상담사의 기본적 소양인 유형별 상담기술과 직업업선도 검사, 상담일지 작성법, MBTI 검사 및 해석 등에 대한 이론과 실무수업으로 진행됐다.

지난달 15일에 실시된 직업상담사 2급 필기시험에서는 교육생 14명 전원이 합격하는 결실을 맺기도 했다. 박진기 센터장(위덕대학교 산학협력단장)은 "이번 직업교육훈련이 경력단절 여성들이 취업상담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에 진행된 '장기요양기관 사무행정'과 '직업상담사 실무향상' 등 교육과정에 이어 △배부른 창업 마케팅 실무 △문화유산 코디네이터 등의 과정이 이달과 다음달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직업교육훈련 참여와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새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수성구 의료·웰니스관광, 일본매체 대대적 홍보

한국에 거주하는 일본인 기자단 취재를 통해 일본 현지 매체 홍보



대구 수성구는 지난 5월 일본 현지 매체의 기사, 칼럼, 블로그 포스팅을 통해 수성구 의료·웰니스 관광을 대대적으로 홍보했다고 14일 밝혔다.

수성구는 의료·웰니스 관광을 홍보하기 위해 지난 4월 13일, 14일 양일간 일본인 블로그 기자단을 초청해 팸투어를 실시했다. '코로나 이후 찾아가고 싶은 수성구'를 주제로 대표 의료·웰니스 체험 및 관광지를 소개하고, 기자단의 다양한 분야 경험과 전문성을 고려해 취재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기자단은 총 3명으로 나리카와 아야 씨(現 제멋대로 한국홍보과 운영, 아사히 글로벌 교토 통신 칼럼연재, 前 아사히신문기자), 마츠다 카는 씨(現 한국문화전문기자, 종합인터넷사이트 'ALL ABOUT NEWS' 강화도 전문 코디네이터, 한방업체 '봄의 향기' 대표)이다.

이들은 한국에 거주하면서 취재할

등을 통해 한국의 문화, 예술, 관광 등을 일본에 소개한다. 직접 본인의 SNS를 운영할 뿐만 아니라 일간지 및 인터넷 종합사이트에 칼럼을 연재하는 등 일본 현지에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팸투어 후 기자단을 통해 지난 5월 오사카일일신문, 코치신문, 사이타마신문 등 일본일간지에 수성구 의료 및 한방, 한국 전통 자수공예, 야외 피크닉 등의 체험 내용이 보도됐다.

ALL ABOUT NEWS, NTT DOCOMO(スマホコンテンツ) 등의 일본종합인터넷 사이트에도 칼럼이 게재됐다. SNS 및 블로그 포스팅 기사가 약 40건 게재되면서 다양한 일본 현지 매체에 수성구가 홍보됐다. 김대관 수성구청장은 "웰니스에 대한 관심과 니즈를 반영해 국가별 맞춤형 홍보 마케팅을 실시하고, 외국 관광객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남궁영기기자

영양군, '영양산나물 전국 비대면 마라톤대회' 성료

영양군은 지역의 청년단체인 영양청우회(회장 김경원)가 주관한 '영양산나물 전국 비대면 마라톤대회'가 12일 성황리에 개최되었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영양산나물 축제 대규모 현장판매가 취소되면서 판로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돕기 위해 개최된 이번 대회는 지난 6월 12일(토) 오전 10시 전국에서 동시에 시작되었다. 참여자들은 참가신청 당시 제공된 영양산나물 홍보문구가 적힌 배번호를 부착하여, 한발한시 같은 출발선에서 정해진 길을 달리는 것이 아닌 전국 곳곳에서 본인이 자유롭게 구상한 코스를 달리며 어려운 농가에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같은 시각 영양군에서는 대회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오도창 영양군수, 장영호 영양군의회 의장, 박재서 영양체육회장 등이 영양군청에서 현동교까지 약 3km를 달리며 비대면마라톤 대회에 직접 참여하는 깜짝 세리머니가 펼쳐졌으며, 현동교 반환점을 돌아 복귀하는 길에는 영양보건소와 함께 신체활동 활성화 장려 캠페인을 추진하며 대회에 의미를 더했다.

김경원 영양청우회장은 "이번 마라톤대회에 좋은 마음으로 참여해주신 전국의 1,200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이번 대회를 통해 참여자에게는 활동이 자유롭지 않은 코로나 시대에 일상의 건강과 활력을 되찾는 계기가 되고 관내 산나물 농가에는 소득증대와 홍보에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세기기자



구미시 경북 최대 규모 통합RPC사업 선정

경북 최대 규모 통합RPC를 통해 쌀 품질 향상과 대외경쟁력 강화



구미시는 지난 6월14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한 "2022년 고품질 쌀 유통활성화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이번 농식품부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지난해 구미시 7개 지역농협이 통합하여 "구미시농협쌀조합공통사업법인(이하 조공법인)"을 설립하여 농식품부 인가를 받았으며 구미시와 조공법인은 지속적으로 사업부지 선정 및 인허가 사항 등 사업요건을 점

검하고 농식품부와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실시한 서면·현장·발표평가를 모두 거쳐 "2022년 고품질 쌀 유통활성화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구미시 선산을 화조리 現선산농협 RPC 부지(20,230㎡)에 들어설 '구미시 통합RPC'는 내년부터 2023년까지 국비 75억 및 도비 11억, 시비 26억을 포함한 총사업비 187억을 투입해 8,526㎡ 규모의 현대화 된 벼

가공시설(RPC)과 건조·저장시설(DSC)을 설치하여 벼 매입· 건조· 저장·가공·유통까지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최신 시설로 구미시 농업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향후 사업비 용도 및 간이설계의 적절성, 산출내역의 적절성 및 장기계획 등과 관련한 사업비 심의(21년 7월 중) 후 최종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21년9월 중) 본격적으로 시설 설계 및 관련 인허가 등을 거쳐 내년 1월 사업을 시작하게 된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먼저 지역 농업 발전을 위해 큰 결단을 내려준 7개 지역농협장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우리 구미시 농업인들이 판로 걱정없이 고품질 쌀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안정적인 식량 생산과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통합RPC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남궁영기기자

김해시 착한배달앱, 착한 소비 열기 이어가다 진주시, 경남11개 시장군수, 'LH 해체 반대' 입장 표명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로 이루어가는 상생하는 도시

김해시에서 지난 5월부터 시작한 '착한 배달앱 이용 캠페인'이 '착한 소비'의 열기를 이어가고 있다. '착한 배달앱'이란 중개수수료 2% 이하이며 김해사랑상품권 결제가 가능해 배달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과 시민 모두의 부담을 줄이는, 소상공인과 시민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배달앱을 지칭하며 김해시에서는 착한 배달앱을 이용하여 해당 월에 3번 이상 상품권으로 결제 후 시청 홈페이지에 인증샷을 남기면 무작위 추첨을 통해 김해사랑상품권을 증정하는 '착한 배달앱 이용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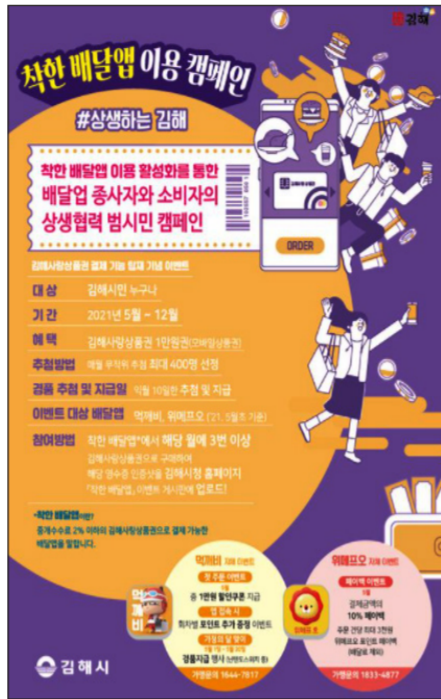
현재 맥게비와 위드프로그가 캠페인 대상 배달앱이며, 5월 한 달 동안 김해시민들이 착한 배달앱에서 결제한 주문건수는 약 4천건으로

캠페인 추진 전과 비교해 4배 넘게 주문량이 증가했다.

이는 김해 시민들이 평소 착한 소비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지닌 점, 타 배달앱의 높은 수수료에 압박받던 관내 소상공인들이 착한 배달앱을 널리 알고자 배달 음식을 주문한 이용자들에게 전단지 등 홍보하는 등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의지와 많은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허성곤 김해시장은 "상생하는 소비, 착한 배달앱 캠페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용에 참여해주시는 모든 시민분들께 감사드립니다"며, "시민 여러분들의 참여가 우리 이웃인 소상공인에게 큰 힘이 되고 있으니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이용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남궁영기자



사천·밀양·의령·함안 등 11개 시장·군수 "LH 해체 반대"

경남지역 11개 시장·군수들이 정부의 LH 해체 수준의 개혁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나타냈다.

진주시에 따르면 지난 2일 경남 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해 'LH혁신 개혁안에 대한 공공건의문' 채택을 요청한 결과, 11개 시장·군수(진주, 사천, 밀양, 의령, 함안, 창녕,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함천)가 적극 동참 의사를 밝혔고 나머지 7개 시장·군수는 유보 입장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LH는 지역 균형발전의 모범적인 모델로 평가받고 있지만 최근 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해체 수준의 혁신 개혁안을 내놓는 등 개혁의 대상이 되고 있으나, 지역사회에서는 이번 개혁안이 혁신도시의 존립과 근간을 뒤흔들고 국가균형발전을 역행하는 처사라며 반발이 거세게 확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남지역 11개 시장·군수는 LH 해체 수준의 혁신 개혁안 재정비를 촉구하는 공동 건의문에 대해 동참 의사를 모으고, 이러한 뜻을 진주시가 청와대, 국회,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전하기로 했다.

공공건의문에는 최근 정부의 LH 조직 해체 수준의 혁신안에 대한 깊은 우려와 함께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맞는 구조 개혁 ▲경남진주혁신도시 존립과 근간을 뒤흔들지 않는 개편 ▲경남도민의 민심이 반영된 LH 혁신개혁 등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경남진주혁신도시 지키기와 LH 해체 반대에 적극 동참해 주신 경남 시장·군수에게 감사드립니다"면서, "LH 혁신방안이 LH를 중심으로 구성된 경남진주혁



신도시의 기능을 축소하거나 약화시켜 지역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방향이 되어서는 안되며, 경남진주혁신도시가 서로 상생하는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정부의 현명한 결정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광용기자

합천중산동 고분 I, 고려시대 돌방무덤으로 밝혀져...

합천군, 고려시대 지방무덤 양식 연구에 중요한 자료 제공



경남 합천군과 경남연구원은 문화재청이 후원하고 (사)한국문화유산협회에서 시행한 비지정 매장문화재의 역사적·학술적 가치를 밝히기 위한 2021년도 매장문화재 학술발굴조사 활성화 사업에 선정되어 지난 4월부터 합천 중산동 고분 I 발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합천 중산동 고분 I은 합천군 쌍책면 하신리 일원에 위치하며, 인접한 중산동 고분II와 함께 그동안 여러 차례의 지표조사를 통해 가야시대 고분군으로 알려져 왔던 비지정 문화재 유적이다. 특히, 고분의 구조가 앞트기식 돌방무덤(橫口式石室墳) 형태로, 가야고분 혹은 백제지역 고분과의 관련성이 제기되었던 유적이다. 이번 학술조사는 합천 중산동 고분을 대상으로 하는 최초의 발굴조사로서 조사를 통해 봉분과 그 주변에 박석, 곡장 등이 확인됐

다.

합천 중산동 고분 I은 해발 408.1m의 시리봉에서 남동쪽으로 뻗어내린 능선 남쪽 경사면의 해발 55m 높이에 위치한다. 봉분은 깎을 돌을 쌓아 긴 네모꼴로 조성하였는데, 규모는 길이 465cm, 너비 280cm, 잔존 높이 110cm로 상태가 양호하다. 봉분 주변으로 얇고 넓은 갯돌(薄石)을 깎 배수로 시설이 확인되며, 북서쪽 가장자리 일부에는 무덤 뒤에 쌓은 담장시설인 곡장(曲牆)이 남아 있어 박석을 깔고 곡장을 돌린 전형적인 고려시대 무덤의 형태로 판단된다. 이러한 형태는 고려시대부터 확인되며, 조선시대 초 사대부묘역 조성에도 이어지는 양식이다.

돌방무덤 입구 앞쪽으로 참매단으로 추정되는 한 줄의 석축열이 확인되며, 묘도(墓道, 무덤 안으로 통하는 길)는 풍화암반을 판 수혈식이며 매

장한 후 흙을 메운 것으로 보인다. 묘도 석축의 형태는 강화도 가릉이나 곤릉 등 왕실급 무덤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돌방무덤은 무덤방으로 들어가는 문을 갖춘 앞트기식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문주석(門柱石, 문짝을 끼우기 위해 문양쪽에 세운 기둥돌), 문미석(門楣石, 두기둥 꼭대기에 걸쳐진 가로돌), 문비석(門扉石, 돌문짝)이 확인된다. 돌방무덤의 규모는 길이 260cm, 너비 140cm, 높이 160cm로 고려시대 지방 무덤 가운데 가장 큰 편이며, 도굴의 피해를 입었지만 온전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내부에서 관못 4점과 청자편 1점이 확인됐다.

이번 발굴조사를 통해 합천 중산동 고분 I은 고려시대 무덤으로 확인되었으며, 서쪽 끝까지 안쪽 사면 중산동 고분II도 이번 조사를 참고할 때 고려시대 무덤으로 추정된다. 또한 북쪽으로 구릉을 달리하여 1.2km 이격되어 상신리 고려시대 분묘군에서도 유사한 구조가 확인되고 있어 고려시대 합천지방의 무덤 양식을 밝히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해 줄 것으로 판단된다.

합천군 관계자는 "발굴조사 성과는 오는 16일 오후 2시 발굴현장에서 학술자문회의와 현장공개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며 "이번 발굴을 계기로 앞으로도 합천의 비지정 매장문화재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실시하여 합천군의 역사문화를 복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광용기자

울산시, "반구대 고래, 라로셀에 오다"

'2021년 울산암각화박물관 국외 교류전'

울산암각화박물관은 6월 14일(현지시각) 프랑스 '라로셀 자연사 박물관'에서 '2021년 울산암각화박물관 국외 교류전 개막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2021년 울산암각화박물관 국외 교류전'은 지난해 12월 12일 시작했으나 코로나19로 '라로셀 자연사 박물관'이 같은 해 12월 16일부터 올해 5월 18일까지 휴관함에 따라 개막식을 갖지 못했다.

이날 개막식에는 주프랑스 대한민국 유대종 대사와 주프랑스 한국문화원 전혜웅 원장 등이 대표로 참석한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울산시에서는 참석이 어려워 송철호 울산시장의 축사 영상으로 대체한다.

이번 국외 교류전은 당초 오는 9월 5일까지 예정되었으나 중간에 휴관을 감안하여 오는 2022년 1월초까지 연장되어 아쉬움을 달랠 수 있게 되었다.



었다.

전시물은 반구대암각화 3D(D) 실물 모형과 당시의 생활상을 조명할 수 있는 유물 복제품 등이다.

이번 프랑스 국외교류전의 개막식 개최와 전시기간 연장은 울산암각화박물관과 울산시 조재철 국제관계대사 등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의

결과이다.

울산암각화박물관 관계자는 "이번 교류전을 통해 반구대암각화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보여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큰 기반을 형성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김기현기자

부산시, 2021 세계해양포럼(WOF), 포스터·캐릭터 대상 작품 확정

부산시가 해양수산부, 부산일보사와 공동주최하는 '2021 제15회 세계해양포럼(World Ocean Forum, WOF)'의 해양콘텐츠 공모전 대상 작품이 확정되었다.

한국해양산업협회에서 추진한 이번 '2021 해양콘텐츠 공모전'에는 44개국에서 총 202점(포스터 141점, 캐릭터 61점)의 작품이 접수됐으며, 국내 참여 107건(포스터 53건, 캐릭터 54건)과 해외 참여 95건(포스터 88건, 캐릭터 7건)이다.

포스터 부문 대상작에는 대만 국적의 리우 유-팅(Liu Yu-Ting, 24세) 씨의 작품 'TransWise'가 선정됐다. 리우 유-팅 씨는 태국 툰부리 킹몽꾸트 기술대학교(King Mongkut's University of Technology Thonburi) 디자인경영학부 석사 과정 입학 예정인 학생이다. 'TransWise'의 메인 디자인 요소인 푸른색 형상은 진동하는 바닷속 잔물결을 연상시키고, 미래에 대한 불안함과 현재의 불확실성을 나타내며, 그 중앙의 가로로 뻗어나가는 흰색 선은 바다의 주체이기도 한 물고기가 인간과 산업의 발전으로 끊임없이 진화하고 변형되는 형태를 띤다.

이외에도 최우수작 '해양의 시대: 축의 대전환(한유지)', 우수작 'Spirit of Ocean(라조스 나기(Lajos Nagy), 헝가리)'과 입선작 10편이 선정됐다. 캐릭터 부문 대상작은 홍익대학교에 재학 중인 박주미(22세) 씨의 작품 '해양이와 해누리'가 뽑혔다. '해

양이와 해누리'는 해양산업 발전을 위해 바다를 연구하는 꼬마 영웅이 자 연구원인 메인 캐릭터 '해양이'와 서브 캐릭터 '해누리'가 세계해양포럼의 동료가 되어 글로벌 참가자들과 함께 상호협력해 해양산업의 미래를 책임지고 문제 해결에 앞장선다는 스토리텔링을 담았다.

최우수작에는 '해복이(김원지)', 우수작 '포비(김재효)'와 입선작 6편이 뽑혔다.

박경준 부산시장은 "중국, 호주, 미국, 브라질, 덴마크, 알제리 등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이번 공모전에 참가해 전 세계에서 세계해양포럼에 대한 인지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라며 "올해로 15회를 맞이하는 세계해양포럼이 해양분야의 다보스포럼이 될 수 있도록 성공적 개최를 위해 내실 있게 준비하겠다"라고 전했다.

남궁영기자

의령군, 2020년 기준 경제총조사 실시

의령군은 6월 16일부터 7월 30일까지 '2020년 기준 경제총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통계청이 주관하고 의령군이 실시하는 이번 조사는 산업 전반의 구조와 분포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5년마다 실시하는 국가기본 통계조사로 조사대상은 2020년 12월 31일 기준 의령군에서 산업활동을 하는 사업체 약 2246개 업체가 해당된다.

사업체들은 PC·모바일 기기를 통해 경제총조사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팩스 등을 활용한 비대면 조사와 대면조사 중 선호하는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다. 방문면접 조사는 통계조사원이 사업체를 직접 방문해 조사를 진행하며 조사기간 중 마스크 착용 및 손소독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조사항목은 사업체명, 종사자 수, 연간 급여액 등 13개 공통항목과 재고액, 연간 생산량, 무인결제기기 도입 판매 등 24개 특성 항목을 조사하고 조사결과는 내년 6월에 확정 발표한다.

앞서 군에서는 경제총조사에 대한 조사요원들의 이해와 업무책임감을 높이고 정확한 조사 결과와 성공적인 조사추진을 위해 지난 5월에 조사요원 11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으며 6월 9일부터는 경제총조사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경영상의 어려움이 크겠지만 사업체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강영훈기자



거제시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품목확대 지원

구분	구매 가능 품목	구매 가능 품목
국내산 육류	고기 6.15부터	국내산 잡곡
국내산 과일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등	면, 쌀, 보리, 밀, 콩, 옥수수, 조, 수수, 녹두 등
국내산 수산물	부추물 8.1부터	국내산 꿀
	내장, 피, 버섯 등	

1. 구매할 수 있는 식품도 꼭 확인하세요!
 육류: 가공육(햄, 육포, 훈제소시시 등), 양념육(불고기, 육회 등), 가정간편식(밀키트, 가공식품 등)
 과일: 사과, 사과, 사과, 사과 등
 꿀: 로열제라, 화분, 프로폴리스, 밀랍

강영훈기자

완도 명품 다시마 수확 한창, 해조류 고장 명성 있다!

해조류에 대한 친환경 수산물 인증, 맛·영양 등 우수성 입증



전국 생산량 대비 70%의 다시마를 생산하는 완도에서는 지금 다시마 수확, 건조 작업이 한창이다.

지난 5월 27일에는 초매식 및 안전 기원제를 가졌다.

6월 9일 기준 마른 다시마 위판량은 555톤을 기록했으며, kg당 가격은 최고가 10,600원, 최저가 5,200원, 평균 단가는 7,720원이다.

올해 마른 다시마 예상 생산량은 18,000톤이다.

완도군에서는 금일송, 고금면, 약산면의 등 1,129어가에서 식용 다시마를 생산하고, 2,529어가에서 전복 먹이용 다시마를 양식하고 있다.

정정해역에서 자란 다시마는 맛과 향이 좋으며 칼슘, 철분, 마그네슘, 비타민 등이 풍부하고, 특히 몸속 미세 먼지와 중금속을 흡착해 몸 밖으로 내보내는 작용을 하는 알긴산도 함유하고 있다.

완도는 다시마와 김, 미역, 툇, 매생이 등 전국 해조류의 40%, 전복은 73%를 생산하여 우리나라 제1의 수산군으로 불리고 있다.

특히 완도 해저 70% 이상이 정화 작용과 영양염류를 생성하는 백반석으로 형성돼 있어 수산물의 맛과 영양이 뛰어나다는 점이 연구 결과를 통해 입증됐다.

지난해에는 다시마와 툇를 생산하

는 11개 어가에서 친환경 수산물 국제 인증인 ASC-MSC를 세계 최초, 최다로 획득했고, 다시마를 양식하는 36개 어가에 친환경 유기 수산물 인증을 받음으로써 완도군이 친환경 수산물 보고장으로 자리매김했다.

최근 미국에서도 완도 해조류를 주목하고 있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에서 해조류 양식장 인공위성 사진을 공개하며 완도는 다시마, 김, 미역 등을 친환경적으로 양식하고, 따뜻한 기온과 완만한 조수차로 해조류를 양식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언급해 화제가 됐다.

또한 전복 내장과 툇, 청각, 다시마, 미역귀 등 해조류의 추출물이 코로나 19 바이러스 침투 억제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세계적 권위의 해양의약 분야 학술지인 '마린 드럭스'에 게재됐다.

신우철 군수는 "해조류와 전복을 특화한 해양바이오산업을 육성하여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로 어촌 경제에 활기를 불어 넣겠다"면서 "내년 4월 15일부터 5월 8일까지 개최하는 2022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해조류의 가치를 전세계에 확산시켜 소비 촉진과 해조류 산업 발전을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양영욱/기자

광주 남구 '최고의 실버가수'는 누구일까?

으뜸 효 TV 유튜브 방송국, 실버 노래자랑 개최

광주 남구 최고의 실버 가수를 뽑는 경연대회가 열린다.

남구는 14일 "남구 노인복지관 '으뜸 효 TV 유튜브 방송국' 개소에 맞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어르신들의 피로감 해소와 활력소를 제공하기 위해 실버 노래자랑 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실버 노래자랑 대회는 오는 28일부터 12월 16일까지 주간 예선전을 비롯해 본선, 패자 부활전, 연말 결승전 등 6개월 대장점으로 열린다.

남구에 주소를 두거나 연고가 있는 만 60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대회 참가 신청서 접수는 오는 10월 26일까지 수시로 진행된다.

먼저 예선전은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 사이에 총 64회에 걸쳐 펼쳐진다. 각 요일별로 참가자 10명이 무대에 올라 경연을 펼치며,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2명은 매주 금요일에 열리는 예선 결승전(본선) 무대에 오른다. 예선 결승전은 총 16회에 걸쳐 진행된다.

예선 결승전을 통과한 노래 달인들은 5주에 한번씩 연말 결승 진출권이 주어지는 본선 무대에서 실력을 겨룬다.

오는 7월 29일과 9월 16일, 10월 28일, 12월 2일에 각각 열리며, 본선 무대마다 참가자 8~12명이 경연을 펼친 뒤 2~4명 가량이 연말 결승 무대에 직행한다.

연말 결승전 빅매치는 오는 12월 10일에 열릴 예정이다.

실력과 실버 가수 12명이 총출동하며, 이 무대를 통해 대상과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인기상 수상자를 가리게 된다.

남구 관계자는 "어르신들의 여가와 일상회복을 위해 준비한 행사인 만큼 가장 실력과 더불어 관객에게 웃음 및 자신감을 선사하는 등 무대 매너에 중점을 두고 심사할 계획이다"며 "코로나19에 지친 주민들에게 커다란 재미와 활력소를 제공하는 무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덕윤/기자



화순군, 공공 스포츠클럽 공모 선정... 스포츠 복지 확대 기대

기반 시설·활성화 계획 호평... 대한체육회, 5년간 6억 지원

화순군체육회가 공공 스포츠클럽 공모 사업에 선정돼 생활체육 저변 확대, 스포츠 복지 확대가 기대된다.

화순군은 지난 11일 대한체육회가 주관한 '2021년 신규 종합형 공공 스포츠클럽 2차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화순군과 화순군체육회는 그동안 성인 남성 동호인 위주의 생활체육 활동의 한계를 극복하고 고령층, 여성, 유소년층 등의 체육활동 참여 기회 확대 등을 고려해 공모 사업에 참여했다.

공모 심사 과정에서도 종목 선정의 적합성, 우수한 체육시설 여건, 시설 접근성, 군의 지원 의지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선정됐다.

종합형 공공 스포츠클럽 사업은 지역 공공 체육시설을 활용해 전문 지도자와 회원 수준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합 제공해 주민이 저렴한 비용으로 생활체육 서비스를 즐기고, 선수반 운영을 통해 전문 선수를 육성하는 선진형 스포츠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와 대한체육회가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해 역점을 두어 추진하는 사업이다.

2021년 6월 현재 전국에 169개의 스포츠클럽이 운영 중이며, 전남 지역에서는 종합형 공공 스포츠클럽 14개(대도시형 3, 중소도시형 11)가 운영 중이다. 화순군은 중소도시형(인구 20만 미만 시·군)에 선정됐다.

화순군은 올해부터 5년간 대한체육회로부터 지원받는 6억 원, 지방비 1억 원을 포함 총 7억 원을 투입해 공공 스포츠클럽을 운영한다. 클럽 축구, 복싱, 탁구 3개 종목을 운영할 계획이다.

회원 수준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2025년까지 축구 200명, 복싱 100명, 탁구 100명 등 총 400명의 회원 모집을 목표로 클럽 활성화에 나선다.

지역주민 대상 무료 강습, 클럽 홈페이지 제작, SNS 등을 통한 클럽 홍보 활동도 펼칠 계획이다.

스포츠클럽은 독립적인 비영리법인인 운영한다. 군과 체육회는 오는 7월까지 인력 채용 계획을 수립하고 사무직원과 종목별 전임 지도자 3명 등 총 5명의 인력을 채용해 사무국 운영진을 구성할 계획이다.

회원 중심의 클럽 활성화를 위한 스포츠클럽 자치 조직으로 각 종목



대표와 대의원 조직, 운영위원회를 따로 구성해 활동한다. 자치 조직과 스포츠클럽 회장, 사무국장, 지도자 등으로 구성된 클럽 사무국과 교류·협력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종목별 프로그램과 연계해 스포츠 체험 교실과 종목별 강습회 등 스포츠클럽 자립과 발전을 위한 각종 수익 사업을 계획 중이다.

스포츠클럽 지역 사회 봉사활동, 지역 주민 대상 커뮤니티 프로그램 개최 등 회원과 주민 참여를 통해 클럽의 공공성을 강화한다.

최규범 화순체육회장은 "오는 9월 까지 법인 설립 준비와 함께 매칭 사

업비 예산 편성, 공공 스포츠클럽 육성 지원 조례 제정 등 클럽 운영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무리해 10월쯤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충근 화순군수는 "공공 스포츠클럽 사업을 통해 생활체육 서비스 질이 높아지고 체육 분야 일자리 창출 등을 기대할 수 있고 스포츠 복지를 확대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화순군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한 새로운 구상점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성공한 공공 스포츠클럽 모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영만/기자

함평군, '군민 건강' 안전이 먼저

함평엑스포공원 물놀이장 올해도 멈춤

올해도 멈춤



여름철 물놀이 명소가 자리 잡은 함평엑스포공원 물놀이장이 코로나 19 영향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가동을 멈춘다.

함평군은 14일 코로나19 지역 확산 방지를 위해 매년 7~8월 개장해 온 함평엑스포공원 물놀이장 운영을 올해도 취소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 이용객이 5만 7000여 명에 달하고, 물놀이장 내 배달음식 반입이 가능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결코 적지 않은 만큼 휴장 결정이 아쉬운 상황이지만 무엇보다 군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이유에서다.

군은 이용객 대부분이 바이러스 감염에 취약한 유아, 아동, 청소년 등인 것과 밀집도가 높아 마스크 착용 및 거리두기(2m) 등 방역수칙 준수가 어려운 점, 코로나19 변종 바이러스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어렵게 휴장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군 관계자는 "함평엑스포공원 물놀이장은 매 휴가철마다 수많은 피서객이 몰리는 전남권 대표 여름휴양시설"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해 올해도 쉬어가게 돼 아쉽지만, 새로운 체험형 물놀이 프로그램 확대 및 물놀이장 보강 등을 통해 명품 휴식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면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함평엑스포공원 물놀이장은 파도풀(782㎡), 유아풀(78㎡), 어린이풀(234㎡), 슬라이드풀(1,055㎡), 워터버킷(251㎡) 등 다양한 놀이시설을 두루 갖춘 가족형 워터파크로 지난 2010년 최초 개장 이래 매년 많은 피서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조기석/기자

여수시, "코로나19 백신 접종 받으면 이런 혜택이..."

음식점, 숙박업소, 목욕탕 등 자율 할인제로 백신 접종률 높이기 나서

여수시는 코로나19 백신 1차 또는 2차 예방접종을 마친 시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6월부터 백신 접종자에게 접종 배치를 배부하고, 농기계 임대료 현행 50%에서 10% 추가 감면, 도서 대출 반납기한 연장을 실시한다. 사회복지관, 경로당 등에서는 2차 예방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노래교실, 체육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7월부터는 여천전남병원, 여수전남병원, 제일병원, 한국병원 등에서 종합건강검진 시 30만 원 이상 결제할 경우 10% 할인을 실시한다. 단 비용을 지원하는 직장 및 단체 등은 제외한다.

낭만포차 등 참여를 희망하는 음식점, 목욕탕, 이·미용실, 숙박 및 민박업소에서도 요금할인 등을 실시한다. 참여 업소는 자율적으로 할인 품목 및 요금을 책정하고, 입구에 "여수시민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하신 분께 요금을 할인해 드립니다"는 안내문을 게시할 예정이다.



인센티브 혜택은 9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예방접종 상황과 코로나19 확산 상황 등에 따라 연장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사부르크루즈는 7월 20일까지 50% 할인 받을 수 있고, 영화관도 6월 말까지 우대요금을 적용한다.

권오봉 시장은 "9월까지 여수시민의 70% 이상 예방접종을 완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대상자들은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접종을 받아 집단 면역이

형성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6월부터 백신을 맞은 뒤 2주가 지난 1차 접종자와 접종 완료자에 대해 현재 8명까지 모임 수 있는 직계가족 모임 인원 제한에서 제외했다. 7월부터는 1차 접종만으로도 공원, 등산로 등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고, 실외 다중이용 시설이나 정류장 등 활동 시 인원 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남출/기자

장성군, 올해 스타기업으로 (주)이엘티, (주)현농 선정!

유두석 군수 "코로나 사태 위기 아닌 기회 되도록 지원"

장성군과 (재)전남테크노파크가 올해 스타기업으로 (주)이엘티, (주)현농을 선정하고 11일 재단 산하 레이저시스템산업지원센터에서 스타기업 지정서 수여식을 가졌다. 수여식에는 유두석 장성군수, 유동국(재)전남테크노파크 원장과 선정 기업 관계자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스타기업 선정은 신청 기업에 대한 6개 항목(현장 조사, 기술경쟁력, 시장성, 조직 역량, 효율성, 기대효과) 평가를 통해 결정됐다. 심사는 (재)전남테크노파크 레이저시스템산업지원센터가 3명의 외부 평가위원을 위촉해 진행했다.

스타기업에 선정된 (주)이엘티(대표 양희원)는 장성군 남면 나노산단에 위치한 기업으로 전력변환기, 태양광발전시스템 등을 생산하고 있다. 연 매출 규모는 55억원이다. 함께 선정된 (주)현농(대표 김철홍) 역시 남면 나노산단 입주 기업이다.



바이오 기술을 이용한 미생물 농약, 친환경 유기농 자재 등을 생산하며, 연 매출 38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스타기업에 선정된 업체에게는 ▲지식·산업 재산권 ▲디자인 ▲정보화 ▲마케팅 ▲품질 인증 ▲시제품 제작이 지원된다. 장성군은 총 5000만원의 재정 지원을, 전남테크노파크에서는 기술 지원을 맡는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성장 잠재력이 우수한 지역 기업을 '스타 기업'으로 선정, 기술력 증대와 산업화를 지원하고 있다"면서 "지역 내 기업들이 장기화 되고 있는 코로나 사태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오홍근/기자

정읍시, 대한민국 대표 동물용 의약품 기업 ‘(주)케어사이드’

정읍첨단산단에 400억 투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동물용 의약품 전문회사인 (주)케어사이드가 정읍시 첨단과학산업단지에 400억 원을 투자한다.

정읍시와 전라북도, (주)케어사이드는 14일 정읍시청 중회의실에서 협

단과학산업단지에 400억원 규모의 투자를 결정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유진섭 시장과 우범기 전라북도 정부부지사, (주)케어사이드 유영국 대표를 비롯한 회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주)케어사이드는 첨단과학산업단지 내 34,310㎡ 부지에 본사와 연구소를 이전하고 생산 시설 등을 갖춘다.

또 지역인재 고용 등의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고 투자이행 등을 통해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최대한 노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와 전북도는 투자보조금 지원과 인허가 절차 진행 등 행정적 제반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할 방침이다.

성남시 라이온벨리에 소재하고

있는 (주)케어사이드는 지난 2002년에 설립됐다.

20여 년 동안 오로지 반려·산업 동물용 의약품 사업에 전념해 그 기술력을 인정받아 현재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동물용 의약품 전문회사로 성장했다.

연 매출 420억, 영업이익 138억, 매출성장률 50%를 기록하고 있는 유망한 중소기업이다.

특히, 동물용 의약품 국내 총 시장 규모는 2019년 기준 1조 2,040억원이며 매년 7% 이상 성장하고 있는 전망이 좋은 블루오션이기도 하다.

유진섭 시장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동물용 의약품 기업이 우리 정읍에 동지를 틀게 된 것을 11만 정읍시민과 함께 환영한다며 정읍 대표하는 훌륭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유영국 대표는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환영해 주신만큼 동물의약품의 선두주자로서 대한민국 대표기업을 넘어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읍시 신정동 일원에 896,321㎡ 규모로 조성된 첨단과학산업단지는 전북연구개발특구 지역과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되어 각종 세제 혜택과 직접 생산품에 대한 수익계약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산업단지다.

현재 21개 기업이 운영 중이고 4개 기업이 신축 중이며 분양계약 5개, 투자협약 7개 기업 등 81.5%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다.

최하은기자

익산원에농산물 해외 수출 잇따라

탐마루 수박, 올해 첫 ‘홍콩 수출길’ 올라



익산에서 생산되고 있는 원예농산물에 대해 업체 입점에 이어 해외 수출길에 잇따라 오르면서 상품 가치와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

시는 국내는 물론 해외시장 마케팅에 주력해 지역 농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농가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할 방침이다.

14일 시에 따르면 익산에서 생산되고 있는 명품 탐마루 수박이 대형 이커머스 업체와 수도권 백화점 입점 공급에 이어 올해 첫 홍콩 수출길에 올랐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11일 익산원예농협 산지유통센터(APC)에서 홍콩으로 수출되는 수박 선적식을 진행했다.

이번 수출은 수박 1톤의 무게가 7kg 이상인 국내 소비 트렌드와 달리 홍콩시장에서는 4~5kg의 작은 크기의 수박을 선호한다는 점에 착안해 이루어낸 성과이다.

시는 작은 무게이지만 비파괴 당도 측정 시스템을 통과한 11브릭스 이상의 고당도 수박을 통해 홍콩 수

출물량을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탐마루 수박은 한국 수박으로 수출하게 되며, 오는 7월부터 본격 출하되는 2기작 수박인 7kg 이상의 씨 없는 수박의 경우 일본 시장으로 수출된다.

이밖에도 멜론과 배는 오는 7월부터 수출길에 오르며 연간 100만불 이상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익산 탐마루 수박은 망성·용안·용동 지역을 중심으로 약 52ha 시설하우스 생산 단지에서 110여명의 공동선별회원이 3천500톤을 재배·수확하고 있으며, 공동선별·상품화 과정을 거쳐 대형유통업체와 도매시장 등 전국각지에 공급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운 시기에 홍콩 수출은 더욱 의미가 깊다”며 “배, 멜론 등 원예농산물이 꾸준히 수출되고 있는 만큼 수박도 효자품목으로 자리매김 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선수기자

남원시, 책값 돌려주기 사업 뚫다

남원시가 코로나19시대 시민 독서진흥과 지역 서점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책값 돌려주기 사업’이 지난 8일 전북도에서 개최한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번 경진대회는 적극행정의 확산 및 우수사례 공유를 위하여 개최된 것으로 전북도 본청 및 소속 공공기관, 도내 시·군으로부터 총 42건의 사례를 접수받아 도민 온라인 심사와 1·2차 사전심사를 거쳐 6건의 우수 사례가 본선에 통과해 최종 순위가 가렸다.

이 날 본선에서는 우수사례 발표의 최종 심사를 위해 전문가 평가단에 의한 발표심사를 진행했으며, 남원시는 시·군 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우수상을 수상한 남원시 문화예술과 ‘공공도서관 책값돌려주기사업’의 사례는 지역 서점과 협업하여, 지역서점에서 구입해 읽은 책을 도서관에 제출하면 남원사랑상품권으로 교환함에 따라 시민의 독서량을 증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현재까지 많은 시민들이 ‘공공도서관

관 책값 돌려주기 사업’에 열띤 관심과 참여를 보이고 있으며, 향후 사업을 꾸준히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남원시립도서관에서는 무료 책 배달 서비스를 실시하여 시민들의 도서관 이용 편의를 높이고 있으며,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한주 남원시장은 “앞으로도 적극행정 문화가 공식사회 내 확산되길 바란다”며, “시민이 체감하고 감동하는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남출기자



진안군, 코로나19 접종 완료 안심 마을 현판 부착



진안군은 60세이상 군민 중 코로나19 예방접종을 70%이상 완료한 마을 경로당에 코로나19 안심마을 현판을 제작해 부

착한다고 밝혔다.

군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완료한 군민들을 우대하고, 아직 접종하지 않은 군민들이 신속히 접종할 수 있도록 독려하여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에 동참시키고자 한다.

현재 군은 60세 이상 인구수 11,795명으로 위탁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이 시작된 가운데 7일 기준 진안군 8,647명인 77.6%로, 도내 69.6%보다 8% 높은 접종률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75세이상 어르신 2차 접종까지 도

내에서 가장 먼저 접종을 완료한 상태이며 접종률도 도내 1위를 기록하고 있어 고령층 예방접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진안군수(전춘성)는 한편의 접종만으로도 86% 넘는 예방효과를 거둘 수 있으므로 군민들 모두가 접종에 동참하도록 노력하여,

집단면역 형성과 마스크를 벗게 되는 그날까지 예방접종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유종철 이희철기자

강임준 군산시장, 군산 1호 나눔 리더 가입

군산시 강임준 시장이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인증하는 ‘2021년 군산 1호 나눔 리더’에 가입했다.

14일 군산시장실에서 열린 가입식에는 강임준 시장과 김동수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이 참석했으며 가입서 서명, 인증패 전달 등 행사가 진행됐다.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진행하는 “2021 전북을 이끄는 나눔 리더 100명 가입 캠페인”은 나눔

문화를 선도하는 기부자를 예우하고, 지역 내 영향력 있는 분들의 나눔 활동 동참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며 올해 강임준 시장이 군산 1호로 가입했다.

나눔 리더는 나눔을 실천하는 개인 기부자 가운데 1년 안에 100만원 이상을 기부한 사람이 가입할 수 있다.

강 시장은 “지역사회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돼 줄 수 있어 기쁘고 시장으로서

군산시의 나눔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많은 분이 나눔 실천 캠페인에 동참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김동수 회장은 “군산시 나눔 문화를 이끌어 가는 시장님께서 나눔리더로서 기부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군산시 나눔 문화 활성화를 위해 모범이 돼 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현태기자

남원 농·축산물로 가장 맛있는 요리 만들기

2021 남원시 유튜브 영상 공모전

접수기간 : 2021. 8. 1(일) ~ 8. 9(월)

공모내용
남원 농·축산물을 재료로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 맛있게 먹는 영상

결과발표
2021. 8. 31. 시 홈페이지 공지 (예정)

작품심사
심사위원 10명 선정 후 국민심사 (유튜브 좋아요 득표수 평가)
최종선정 : 심사위원 점수 50% + 국민심사 점수 50%

출품작규격
아래 3가지 내용을 모두 포함해야 함.
① 영상 자막 또는 화면에 남원 농산물 구입처 표기
② 요리 방법 소개
③ 맛있게 먹는 먹방
※ 출품작 규격 이외 영상 촬영 장소, 내용 구성, 화질 구성 등은 자유형식으로 하되 영상 길이는 최대 10분을 넘지 않도록 함

시상내역

구분	작품수	시상금	비고
대상	1	3,000천원	상금
최우수상	2	각 1,500천원	
우수상	2	각 1,000천원	
입선	5	각 300천원	
제출방법	참가신청서 1부, 약속서 1부, 출품작 1편 제출(hijins@korea.kr)		

문의처
남원시청 홍보전산과 홍보계 ☎063-620-6044
※ 기타 세부사항 및 신청서류는 남원시청 홈페이지 참고

이거 보면
먹고 싶을걸~

부여군, 사비백제 왕궁 찾기 토지비축사업 보상을 95%



부여군은 부여읍 쌍북리, 관북리고도보존특별지구 내 백제 사비왕궁터 발굴정비사업 토지비축사업을 올해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업무협약(2018. 8. 30)을 체결한 후, 현재까지 소유자 기준으로는 333명 중 317명이 완료되어 95%를, 토지면적 기준으로는 95,844㎡중 93,925㎡가

완료되어 98%의 보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이주대상 220가구 중 92가구가 이전 완료하여 41.8%의 이전을 보이고 있다. 부여군과 LH는 보상을 완료한 주민을 대상으로 이전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누락된 지장물, 분묘 등의 협의 보상과 잔여 토지, 지장물에 대해서도 수용재결을 신청하는 등 협의기간인 올해 말까지 모든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2020년 11월 사비이주단지가 미조성되어 이주여건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고, 2038년까지 발굴정비가 중장기적으로 추진되는 이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하여, 지난해 LH 토지비축사업 토지보상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토지비축사업 희망자는 LH에서 보상을 받고, 미희망자는 부여군에서 추후 보상받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군은 이주민의 생활안정을 고려하여 사비이주단지 부지조성이 완료된

후 이사할 때까지 현재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이주 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목표다. 사비이주단지 총 사업비 50억 중 국비 포함 29억을 확보했으며 2022년에 잔여사업비 21억을 확보하여 51세대 규모의 단지기반을 조성, 내년 11월부터 택지를 분양할 예정이다. 또 화지산 인근 300여 세대가 들어갈 수 있는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건립이 추진되고 있어 여기를 희망하는 이주민들이 최대한 많이 입주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향후 토지비축사업을 원활하게 마무리하고, 이주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쏟아 부을 것이며, 사업추진으로 빈집이 우범화되는 것을 막고자 이주민들의 이전과 동시에 빈집 철거를 신속히 추진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원호/기자

괴산군, 전체 군민 대상 자전거보험가입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 보험 혜택

충북 괴산군이 8년 연속으로 자전거보험 혜택을 군민들에게 제공한다. 괴산군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자전거를 이용하는 군민들의 안전사고에 대비해 1년간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고 10일 밝혔다. 보험 가입기간은 2021년 6월 1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 1년간으로, 매년 갱신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괴산군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를 이용하던 중 사고가 나면 보장내용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요 보장내용으로는 자전거사고 사망 및 후유장애 시 500만원 내 보장금액을 지원하며,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았을 경우에 10만원부터 최고 50만원까지 상해진단 위로금 지급 등이다. 또한 자전거를 타다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했을 경우 벌금(200만원 한도), 변호사선임 비용(200만원 한도), 교통사고처리지원금(1인당 3000만원 한도) 등을 보장받



는다. 군 관계자는 “자전거 보험가입은 혹시 모를 만일의 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피해를 줄이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최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친환경 교통수단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

최민식/기자

세종시 보람동 미래를 결정할 소중한 한 표 기다립니다

보람동주민자치회 주민총회 앞두고 오는 30일까지 투표인단 모집



세종특별자치시 보람동 주민자치회(회장 박윤경)가 오는 7월 10일 온라인으로 개최하는 보람동 첫 주

민총회를 앞두고 이달 30일까지 투표인단을 모집한다. 주민총회는 주민 참여를 통해 주

민제안사업, 마을계획사업 등을 의결하는 주민공론의 장으로,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으로 개최하고 온라인과 현장 주민투표를 실시한다. 온라인 주민투표를 희망하는 주민은 오는 30일까지 보람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투표인단은 주민총회 전 투표기간 동안 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 투표 서비스를 이용해 투표할 수 있다. 당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현장에서 보람동 주민 또는 보람동 내 위치한 사업장에 종사하는 직장 대표자 만 16세 이상이면 누구나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박윤경 주민자치회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보람동에서 처음 개최하는 주민총회에 모두가 함께하지 못해서 아쉽다”며, “온라인으로 총회가 개최되지만 내년도 사업결정을 위해 주민 여러분이 소중한 한표를 꼭 행사해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재은/기자

정선군, 제46회 정선아리랑제 10월 14일부터 4일간 개최



정선아리랑문화재단에서는 제46회 정선아리랑제를 10월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재단은 올해 9월 9일부터 12일까지 개최 예정되었던 제46회 정선아리랑제 행사를 코로나19 예방접종

이 전국적으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9월 추석 전후로 전국민의 70% 이상이 접종을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보다 많은 사람들이 정선아리랑제를 즐길 수 있도록, 9개 읍면 정선아리랑제 추진위원회,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행사 일정 변경을 결정하였다. 제46회 정선아리랑제는 취소 없는 축제와 코로나19에 따른 탄력적 오프라인 축제장 운영을 원칙으로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융합시킨 O2O플랫폼 축제를 준비해 글로벌 융합축제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축제 개최 시기를 10월로 변경함으로써 오프라인 축제장과 프로그램에 더 많은 방문객을 수용하여 지난해 개최하지 못하여 아쉬웠던 부분에 대한 해소를 코로나19로 힘들었던 국민들에게 위로를 될 수 있는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

력을 다하고 있다. 또한 기존 축제의 틀을 벗어나고자 하는 올해 정선아리랑제는 멈추지 않는 축제 환경 구축과 아리랑 웰니스 축제를 비전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가상축제 메타버스(Metaverse) 페스티벌과 현실축제 오프라인 축제를 융합시킨 초월성 축제를 기본 개념으로 추진되고 있다. “아리랑, 인류의 희망을 노래하다!”라는 정선아리랑제의 주체처럼 힘든 코로나 시대에 대한민국 국민을 넘어 전세계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 줄 올해 정선아리랑제가 기대된다. 전통남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이사장은 “정선아리랑제가 코로나 19로 지친 국민에게 희망을 줄 축제로 거듭나기를 바라며 마스크를 벗고 많은 사람들을 축제장에서 만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최민수/기자

박정현 대덕구청장, '노인학대 인식의 날' 메시지 발표

박정현 대덕구청장이 15일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을 맞아 기념하며 메시지를 발표했다. 박정현은 “해마다 꾸준히 늘고 있는 노인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어르신들의 인권증진을 위해 모두가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며 말씀을 열었다. 그는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고령화 속도가 급격히 빨라지며 노인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주변의 외면과 무관심 속에 어르신 10명 중 1명이 학대를 당하는 현실은 우리나라 어르신들의 어두운 자화상이기도 하다”며 유감을 표했다. 보건복지부의 '2019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와 '2017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의 9.8%가 학대 경험이 있다. 매년 70만 명 이상의 노인들이 학대에 노출된 것으로 추산되지만, 2019년 노인학대 신고 접수 건수는 1만 6071건으로 저조하고, 이 중 학대사태는 5243건(32.6%), 재학대 사례는 500건(9.5%) 밖에 되지 않아 완패되거나 밝혀지지 않은 학대가 상당하다. 또한 “더욱이 문제는 대부분의 노인학대가 자녀, 배우자, 며느리, 친척 등 친족(74.2%)에 의해 가장 안전해야 할 가정(84.9%) 내에서 발생한다는 점”이라며 “노인학대는 더 이상한 가정의 문제가 아닌, 예로부터 소

중히 지켜온 '경로효친'의 전통적 가치관이 붕괴된 사회적 문제로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남의 집 일이나’ ‘학대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 하는 사이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학대를 당하는 어르신들이 있다”며 “노인학대 신고는 참견이 아니다. 학대 피해를 부끄러운 가정사로 치부해 감추고, 처벌을 두려워해 외부에 알리기를 꺼려하는 노인에게 건네는 도움의 손길”이라고 강조했다. 곧바로 “건강하고 행복하게 내가 살던 곳에서 존엄한 노후를 보내는 건 어르신들이 응당 누려야 하는 기본권”이라며 “어르신의 권리보장과 인권보호를 위해 지역사회가 적극 나서주길 바라며, 어르신들이 지역공동체의 일원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고 지혜를 나누는 따뜻한 행복공동체를 여는데 대덕구가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고정화/기자



단양군, '단양황토마늘' 6년 연속 국가대표 브랜드 대상 수상



단양군은 한지형 명품 마늘로 인정받은 단양 황토마늘이 친환경 농업도시 단양군의 브랜드 가치를 높였다고 밝혔다. 군은 서울 중구 밀레니엄힐튼호텔에서 열린 2021 국가대표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단양 황토마늘이 '농·특산물브랜드(마늘)' 부문에서 6년 연속 대상을 수상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국가대표브랜드 대상은 한 해 동안 국가를 대표하는 산업, 지역, 농·식품, 문화 각 부문의 브랜드를 선정하는 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

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가 공동으로 후원한다. 군은 국가대표브랜드대상 조직위가 표본 추출한 만 16세 이상 소비자를 대상으로 인지도·선호도·만족도·신뢰도·충성도(재구매력) 등 5개 항목을 평가한 결과 우수한 점수를 받았으며, 2016년부터 6년 연속 브랜드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하지(夏至)를 전후로 수확하는 단양 황토마늘은 한지형 마늘로 주·야간 큰 일교차와 석회암 지대 황토밭에서 재배돼 맵고 단단한 것이 특징으로 타 지역 마늘에 비해 맛과 저장성이 뛰어나 소비자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또한, 향암과 성인병 등에 효능이 있는 알리신 성분이 다량 함유돼 건강식품으로도 인기가 높다. 2007년에는 품질, 특성 등을 인정받아 농림축산식품부의 대한민국 지리적 표시 29호로 단양마늘이 지정되는 성과도 거뒀다. 단양군은 단양황토마늘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해마다 마늘축제와 직거래 행사를 열고 있으며, 안정적인 마늘의 생산·유통을 위해 단고를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통해 수확량의 10%를 수매해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환경 조성에도 기여하고 있다.

최민식/기자

춘천시, '원탁에 모여 마을계획 수립해요'

춘천시 읍면동 주민자치회, 7월초까지 '주민속의 토론회' 개최

주민 주도의 마을계획 수립을 위한 원탁토론회가 펼쳐진다. 춘천시마을자치지원센터는 지역별 주민자치회의 일정계획에 따라, 오는 14일부터 마을계획 수립을 위한 원탁토론회가 개최된다고 밝혔다. 마을계획 수립을 위한 원탁토론회는 지역별 마을계획 수립과정에 있어, 마을 현안에 대한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마을의 필요 의제에 대한 속의가 이뤄지는 공론장이다. 본 토론회는 지역별 주민자치회가 기획·진행·의제선정의 전 과정을 주도하여 마련된 행사이며, '의제분야별' 테이블을 배정해 토론회 참석자가 관심 의제를 다루는 테이블에 앉아 해결방안을 숙의하고, 발표 및 의제 투표를 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기타 세부 사항은 각 주민자치회의 행사 구성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원탁토론회 개최 대상지는 주민자치회 설치 지역인 13개 읍·면·동이 다. 마을별 엮서 배우 및 엮서함을 통한 의제 수집 활동('21년도 만만한 의제발굴) 및 '찾아가는 의제발굴(현장인터뷰)'의 도출 결과를 원탁토론회의 속의 과정에 삼는다. 원탁토론회 일정은 ▲석사동

(6.14.)을 시작으로, ▲강남동(6.17.~25.) ▲신북읍(6.19.) ▲퇴계동(6.22./6.24.) ▲신사우동(6.24.) ▲후평2동(6.25.) ▲효자1동(6.29.) ▲동산면(7.2.) ▲후평3동(7.10.) 순으로 개최될 예정이며, 일부 주민자치회는 현재 세부 일정을 조율 중이다. 참석인원은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준수를 위해 100명 이내로 한정했다. 센터 관계자는 “원탁토론회에서 주민들이 직접 선별한 의제들은 오는 7~8월중 개최될 주민총회 안건으로 상정되며, 주민투표 등을 거쳐 '2022년도 마을자치회 속의예산 지역사업'으로 최종 선정된다”고 말했다.

최재은/기자



정종순 장흥군수, 아시아문화경제진흥대상 수상

아시아문화경제진흥원 선정 지방자치단체 부문 수상 영예

정종순 장흥군수가 (사)아시아문화경제진흥원(원장 강성재)이 주최하는 제27회 아시아 문화경제진흥대상 지방자치단체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제27회를 맞는 본 시상식은 코로나 19의 장기화에 따라 불가피하게 작년에 개최하지 못하게 되어, 참석 인원을 축소하여 명사 특강 및 시상식 등의 프로그램으로 올해 진행하게 되었다. 아시아문화경제진흥대상은 아시아 국가 간 우호 증대와 문화 협력을 통해 동반자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아시아의 경제·사회·문화·정치·지자체·교류·지역 개발 부문에 공헌한 개인과 단체에 수여된다.

이번 지방자치단체 부문은 정하영 김포시장과 김재중 옥천군수가, 정치·외교 부문은 이기호 국회의원과 김교흥 국회의원 등 7개 분야 15명이 함께 수상한다. 정 군수는 "군민이 행복한 장흥 실현을 제1의 가치로 내걸고, 4메카(스포츠클러스·문림의향·안전·친환경), 4시티(노인공경·여성친화·아동친화·수열그린) 건설에 매진하고 있다"며 "정남진 장흥이 아직은 작지만 먼 미래를 내다봤을 때, 아시아의 경제 문화의 주축이 될 수 있도록 잠재력을 키워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장길/기자



예천군 경북일고등학교 김제덕 선수, 2021 아시아컵 양궁대회 우승



도쿄 올림픽 최종 점점 이상 무

도쿄올림픽 양궁 국가대표인 고교 신공인 예천군 경북일고등학교 김제덕 선수가 광주국제양궁장에서 열린 2021 아시아컵 양궁대회에서 올림픽 국가 대표팀 선배이자 2016 리우올림픽 금메달리스트 김우진을 꺾고 남자 개인전에서 우승과 남자 단체전 우승으로 2관왕을 달성했다. 아시아컵 양궁대회는 도쿄 올림픽 전 마지막 실전무대인 만큼 올림픽 최종 리허설을 성공적으로 마쳐 올림픽에서 활약을 더 기대하게 됐다. 도쿄올림픽 개막일 기준으로 만 17세 3개월이 되는 김제덕 선수는 올림픽 메달 획득 시 한국 남자 양

궁 최연소 올림픽 메달리스트가 된다. 성공적으로 마지막 실전 테스트를 마친 김제덕 선수는 진천선수촌으로 입촌해 전열을 가다듬고 7월 18일 도쿄 올림픽 개최지인 도쿄에 입성할 예정이다. 김학동 군수는 "올림픽 전 마지막 실전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친 김제덕 선수에게 먼저 축하의 인사를 전한다"며 "예천 출신의 훌륭한 선배를 뒤를 이어 도쿄 올림픽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두길 6만 군민과 함께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세기/기자

서산소방서, 인명구조사 2급 응시자 전원 합격 쾌거

서산소방서는 지난 11일 중앙소방학교에서 실시된 인명구조사 2급 자격시험에 응시한 119구조구급센터 과 지성·이한길·노재한 대원이 전원 합격했다고 밝혔다. 인명구조사는 인명구조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체력, 장비 활용능력을 보유한 사람 중 중앙소방학교에서 시행하는 인증평가에 합격한 사람을 말한다. 자격 취득을 위해선 수중·수상 구조, 산악 로프 하강·등반, 교통사고 구조 등 9개 과목의 고난도 평가를 모두 통과해야 하며 자격 취득자는 화재·재난현장에서 인명구조 전문가

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세 명의 구조대원은 비번일과 개인 휴식시간도 반납하면서 각종 훈련에 매진한 결과, 전원 합격이라는 영광을 안게 됐다. 정우영 현장대응단장은 "그동안 자격 취득을 위해 열심히 훈련에 임해준 대원들에게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전문성 확보를 위해 많은 소방대원이 인명구조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산소방서에서는 이번 합격자를 포함해 13명의 구조대원이 인명구조사 자격을 보유하게 됐다.

최재은/기자



서울특별시 구로구 레슬링팀 제46회 KBS전국레슬링대회 금3·동1 획득

서울특별시 구로구 레슬링팀이 '양정모올림픽제패기념 제46회 KBS배 전국레슬링대회'에서 금메달 3개, 동메달 1개를 차지했다. 대한레슬링협회, KBS한국방송, 강원도레슬링협회가 주최·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이달 9일부터 15일까지 7일 간 강원도 평창군 국민체육센터에서 진행된다. 구로구 레슬링팀은 선수 6명이 참가해 4명이 메달을 획득했다. 자유형에서는 70kg급 정용석(국가대표) 79kg급 서범규 86kg급 강대규 선수가 금메달을, 125kg급 기현준 선수가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 밖에도 자유형 단체전을 우승했으며 서범규 선수가 최우수선수상, 고수진 감독이 지도감독상을



수상했다. 구로구 레슬링팀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가대표 선

수를 목표로 훈련을 이어가고 있다.

김미성/기자

신우철 완도군수, 군민과 소통 잘해 최우수상 수상

신우철 완도군수가 매니페스토 365캠페인 한국본부로부터 2021년 소통대상 분야의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매니페스토365캠페인 한국본부는 주민과의 소통은 물론 정책과 공약 중심의 선거를 통한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자 2008년부터 매년 '정령, 소통, 사회 공헌' 3개 분야 수상자를 선정해왔다.

특히 소통 분야는 홈페이지,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공약사항 이행과 정책 알림, 군민 제안 제도 운영과 같이 주민과 적극 소통하는 후보를 선정한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군민 행복 정책 토크와 이동 군수실 운영, 외딴섬 방문 등 발로 뛰는 적극 행정으로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열린 군정을 펼쳐나가고 있다.

특히 유튜브 완도희망채널, 소셜미디어(SNS)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해 군 역점 시책, 문화·관광 자원, 특산물 등을 적극 알리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신 군수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주민들과 소통하려는 노력이 최우수상 수상이라는 성과로 이어졌다"며 "남은 임기 동안 더욱 낮은 자세로 주민들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긴밀하게 소통하여 군민들을 위한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양영율/기자



광주시 오포읍, 능평1리 이장 임명

광주시 오포읍은 14일 오포읍 행정복지센터에서 능평1리 이장으로 손승용씨를 임명했다. 그동안 능평1리는 전임 이장의 병고로 인해 한 달이 넘게 공석이었으나 마을 대동회를 통한 신임 이장 추천으로 임명이 이뤄졌다. 이장 임명은 '광주시 이·동장 임명에 관한 규칙'에 따라 마을의 추천을 받아 읍장이 임명하게 된다.

권용석 오포읍장은 "새로 임명되신 손승용 이장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오포읍은 '5감만족 포(for you)유'를 위한 44개 모든 행정리의 이장 임명을 완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최근수/기자



이동섭 국기원장, MBN 토요일포커스 출연

이동섭 국기원장이 'MBN 토요일포커스'에 출연한다. 이 원장은 오는 6월 12일(토) 오전 5시 40분부터 약 20분간 방송되는 'MBN 토요일포커스'에 출연, 태권도 세계화와 국기원 운영 방향 등에 대한 소신을 밝힌다. 'MBN 토요일포커스'는 매주 토요일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리더들의 진솔한 모습과 성공 비결을 시청자에게 전달하는 프로그램이다. 그동안 이낙연 전 국무총리를 비롯

해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조희연 서울특별시 교육감, 김승호 보령제약 회장, 최규복 유한킴벌리 사장 등 사회 각계에서 활약하고 있는 저명인사들이 출연했다. 이 원장은 국기원장 취임 이후의 소회를 비롯해 태권도가 법률에 의해 국기(國技)로 지정되기까지 일화, 국기원과 태권도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등 다양한 견해를 피력한다.

전순희/기자



인천계양경찰서, 전화금융사기 범인검거 제보 시민에 표창 수여



인천계양경찰서는 지난 10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검거에 적극 도움을 준 조성한(29)씨에게 경찰서장 표창을 수여하고 '우리동네 시민경찰'로 선정했다.

지난 1일 피해자 A씨(61세, 남)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전화금융사기 피의자 C씨로부터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회사로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의 일부를 현금

으로 준비하여 전달해주면 된다."라는 말을 듣고, 이에 속아 1,465만원을 인출하기 위해 은행에 방문하였다.

그 사이 C씨가 보낸 전화금융사기 현금 수거책 B씨가 회사에 도착하였고, 피해자 A씨가 대출을 받으려고 한 사실을 알고 있던 같은 회사의 직원인 조씨는 회사 앞을 서성이고 있던 현금 수거책 B씨를 보고 수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 출동한 경찰은 B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

조은수 경찰서장은 범인검거에 결정적 기여를 한 조씨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신속한 신고로 범인을 검거하여 피해를 예방 할 수 있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협업체로 다각적 방법으로 전화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재은/기자

영천시, 6월 호국보훈의 달 호국의 고장, 영천으로 역사탐방 떠나자

국립영천호국원, 영천전투메모리얼파크·영천전투기념관, 3선현(정몽주·최무선·박인로) 유적지 등 호국문화 체험관광지로 떠올라

영천시는 치열했던 전쟁의 판도를 뒤바꿨던 '임진왜란 영천성 수복전투', '6.25 전쟁 영천전투'가 일어났던 곳으로, 위기 때마다 나라를 지켜 역사에 길이 남을 패거리를 이뤄낸 '호국의 고장'이다. 영천에는 6.25전쟁의 국립영천호국원, 영천전투메모리얼파크·영천전투호국기념관 등 호국·안보 역사교육의 장을 중심으로 임진왜란 영천성 수복전투 전적지인 조양각과 조양공원, 충효의 얼이 가득한 정몽주 선생의 임고서원, 노계문학관, 최무선과학관 등이 있다.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정신을 느낄 수 있는 영천시의 호국문화 체험관광지 5선을 소개한다. 영천전투메모리얼파크와 영천전투호국기념관은 6.25전쟁 당시 역전의 신호탄이 된 '영천전투'를 기념하고 후대에 나라사랑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건립된 호국·안보 교육의 장이다.

'영천전투'는 6.25전쟁 발발 후 최초의 국군이 대승한 전투이다. 1950년 9월 4일부터 13일까지 약 10일간 치열한 공방전 끝에 승리를 거둬, 낙동강 방어선 붕괴를 막고 국군과 UN군 반격의 교두보 역할을 했다.

이 '영천전투'를 통해 6.25전쟁의 역사를 직접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곳이 바로 영천전투메모리얼파크와 영천전투호국기념관이다.

먼저 영천전투메모리얼파크는 호국·안보 테마 체험을 제공한다.

전투전망타워에는 6.25전쟁 당시 영천전투를 기념하는 추모·전시·영상물이 전시되어 있고, 서바이벌 체험장에서 전투현장을 그대로 복원해 어른, 아이할 것 없이 시간전·고지전에 푹 빠져볼 수 있다.

국군훈련장, 실내사격장, 실외사격장, 키즈존 등도 마련돼 단체나 가족 모임뿐 아니라 개인이 방문하여도 부담 없이 체험을 즐길 수 있다.

다음으로 영천전투호국기념관은 국립영천호국원과 연계해 참전세대와 전후세대 간의 공감과 호국영령을 위한 추모의 장을 마련한다.

제1전시관에서 광복에서 분단, 전쟁, 휴전까지 6.25전쟁의 전투를 재현하고 있으며, 제2전시관은 영천전투 추모 공간을 마련해 오늘날의 평화와 호국·안보의 소중함을 되새긴다.

또한, 야외에는 기억의 연, 무궁화동산 같은 휴식·산책 공간을 설치해 방문객들이 여유를 느낄 수 있으며, 올해부터 관련 조례를 개정해 영천전투호국기념관의 무료입장이 가능

해져 부담 없이 방문할 수 있다. 국립영천호국원은 지난 2001년 고경면 청정리 일원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고귀한 목숨을 바친 호국영령을 추모하며, 그분들의 희생과 애국·애족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자 세워진 국가유공자 및 참전용사의 국립묘지이다.

현재 6.25 참전 유공자 3만2천7백여 명, 국가 유공자 7천7백여 명 등 4만7천여 명이 안장되어 있다. 추모뿐만 아니라 전후 세대의 호국·안보 교육장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매년 80만 명 정도의 추모객이 호국원을 찾아 선열들의 넋을 기리며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있다.

영천의 대표 호국역사인물 3인이 있다. 3선현(先賢)이라 불리는 동방성리학의 큰 스승이자 호국역사 인물인 '포은 정몽주', 고려 말 화약을 발명한 과학자이자 무인인 '최무선 장군', 예술가이자 무장이었던 가사문학의 대가 '노계 박인로 선생'이다.

이들 3선현의 유적지는 임고서원(임고면)·최무선과학관(금호읍)·노계문학관(북안면) 등이다. 그동안 영천시는 3선현을 테마로 스토리텔링을 개발, 관광브랜드화에 박차를 가해 와서 방문객들이 역사의 현장 속에서 다양한 이야기거리, 볼거리를 즐길 수 있다.

영천시 임고면 양항리에 소재하는 임고서원은 고려 말 충절을 지킨 충신 포은 정몽주(1337~1392) 선생의 위패를 모시고 있다. 정몽주 선생의 충절을 기리고 관광자원화하기 위해 영천시는 임고서원 성역화 사업을 진행해 역사공원으로 재탄생시켰다. 더불어 서원 내 전통문화·예술교육 기관인 임고서원충효문화수련원은 청소년들에게 인성교육의 장으로 각광받고 있다. 임고서원을 지키고 있는 수령 500년 된 은행나무는 계절마다 다른 모습으로 방문객들을 맞이한다.

고려 말 화약과 화포를 발명해 왜구 토벌 등 나라를 지킨 장수로 널리 알려진 최무선(1325~1395)장군의 업적을 기리고 관광자원화하기 위해 영천시가 최무선 장군의 고향인 영천시 금호읍 원기리에 성역화 사업을 진행해 지난 2012년 4월 최무선과학관을 개관했다. 최무선장군의 생애와 화약의 역사와 발전 과정에 대한 영상과 그래픽 패널이 전시되어 있고, 총통과 화차, 신기전 등 각종 복제유물들이 다양하게 전시 중이다. 현재 영천시는 변화하는 문화콘텐츠 요구에 발맞춰 과학문화에 좀 더 쉽고 재미있게 접근하고자 다양한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는 최



무선영상체험관을 추가로 설치했다. 영상체험관은 최무선장군의 일화화 바탕으로 한 화학 제조 및 진포대첩을 체험할 수 있는 최신 VR(가상현실)과 4D 상영관, 무한상상실로 구성되어 최무선과학관과 함께 경북 대표 과학·문화 공간으로 한층 더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된다.

노계 박인로 선생은 영천시 북안면 출신으로 임진왜란 당시 의병으로 참전했으며 고산 윤선도, 송강 정철과 함께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3대 시성(詩聖)이다. 영천시는 노계 박인로의 업적 거양과 전통문화관광자원 구축을 위해 2018년 6월 노계문학관을 개관하여 운영 중이다. 문학관 내에서는 누항사·노계가·조흥사가 등의 작품과 노계의 예술관을 영상으로 감상할 수 있다. 한편 영천시는 현재 노계박인로 선생의 표준영정 제작과 노계문학관 주변 정비사업 등을 추진 중이다.

영천성 수복전투는 임진왜란 당시 파죽지세로 북상했던 왜군을 상대로 권응수 장군을 포함한 의병(창의정용군) 3,560여 명이 영천성 탈환에 성공해 전국 최초로 빼앗긴 성을 되찾고, 대규모 육지전에서 승리를 거둬으로써 적의 보급로를 차단하여 임진왜란 전황에 큰 영향을 미쳤다.

영천 금호강변 벼랑에 세워진 영남 7투의 하나인 조양각 건물 주변이 영천성 수복전투가 벌어졌던 전적지이다. 이곳은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144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1368년 고려 공민왕 때 정몽주가 영천부사 이용 및 지역 선비들과 지은 누각이나 임진왜란 때 소실되어 현재 건물은 조선 인조 이후 다시 지어진 것이다.

조양각은 영천 시내 창구동 조양공원 안에 위치해 있는데 공원 좌측에 영천문화원과 산남의진비가 있고 우측에 선정비, 공덕비들이 모여

있어 순국선열들과 무병 의병들의 숭고한 희생과 그 호국역사를 살펴볼 수 있다. 산남의진은 구한말 항일 운동의 대표적인 의병 진영으로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일제의 침탈에 항거해 정환직, 정용기 의병장이 영천을 중심으로 경북 남동부 일대에서 크게 위세를 떨친 의병 진영을 말한다. 정환직, 정용기 부자 모두 의병활동에 참여해 순직했을 만큼 역사적으로도 그 의미가 깊다. 충효재는 그들의 충효 정신을 추모하기 위해 동네 이름을 자양면 검단동에서 충효동으로 고쳐 1923년에 건립했다. 같은 자양면 보현산 자락 아래 두 장군과 의병들의 위령제를 모시는 천년고찰 거동사가 있어 함께 둘러볼 수 있다.

"임진왜란·6.25전쟁, 나라의 위기 때마다 영천에서 승리!" "호국테마 관광지 영천에서 특별한 역사탐방 떠나보자" 최근 시장은 "6월 호국·보훈의 달에는 호국의 고장 영천을 방문해 대역전전의 신호탄이 된 '6.25전쟁 영천전투'와 '임진왜란 영천성 수복전투'를 직접 체험하고, 함께 기억하며 올바른 국가관과 나라 사랑의 의미를 되새기길 바란다"며, "영천전투메모리얼파크와 영천전투호국기념관, 3선현 유적지 등을 방문하며 영천에서 일어난 전투의 의미를 되새기고 호국·안보의 역사를 피부로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서바이벌체험장, 국군훈련장, 전시실·기념관, 문화재 등이 다채롭게 준비되어 있어 함께 방문하는 어른과 아이 모두에게 특별하고도 뜻깊은 호국·안보 역사체험을 선사할 것이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나라를 지켜주신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이 후대에 걸쳐 전승되도록 '호국테마 관광지, 호국의 메카 영천'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의지를 전했다.

김제기기자

세종음악창작소 공연장, 6월 20일까지 하반기 정기대관 접수

스튜디오 및 연습실 대관은 21일부터 상시대관 접수

세종문화재단(대표이사 김종률)은 세종음악창작소 누리락의 하반기 대관접수를 진행한다. 세종음악창작소는 예술인의 창작 지원을 위해 마련된 공간으로 182석 규모의 공연장과 녹음스튜디오, 밴드연습실, 1인 미디어 창작 공간인 크리에이티브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재단은 공연장에 대한 정기대관을 오는 20일까지 접수받고, 잔여일자에 대해서는 상시대관으로 운영한다. 또한 녹음스튜디오와 밴드연습실, 크리에이티브룸은 공간 활성화를 위해 상시대관으로만 운영되며 21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지난 상반기 시범운영기간 동안 세종음악창작소의 이용자는 총 2,261명, 100건에 이르며, 재단은 이용자의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주말을 포함해 운영하고,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한다.

대관 신청 등 세부사항은 세종음악창작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한편 재단은 올 하반기에 음악창작소 공간 활성화를 위해 시민의 아

마추어 밴드활동을 지원하는 '누리락밴드' 대중음악 전문강사인 '누리락 아카데미' 등도 진행할 예정이다. 최재은기자

2021년 하반기 대관 신청 공고

위 치	세종문화재단(세종시 금호동 387, 10층 2실)
대관시설	(공연장) 182석 200평 공연장 (녹음실) 1인 미디어 창작 공간 (밴드연습실) 밴드 연주 가능 연습실 (크리에이티브룸) 1인 미디어 창작 공간
대관기간	2021. 7. 1(목) ~ 12. 31(금) / 6개월 *공연장(공연)은 2021. 7. 1(목)부터 2022. 6. 30(목)까지
접수기간	(공연장) 2021. 6. 10(목) ~ 6. 20(금) (녹음실) 2021. 6. 21(토) 10:00 ~ 14:00 (밴드연습실) 2021. 6. 21(토) 10:00 ~ 14:00
대관료	세종문화재단 문화재단 운영 장려금 지원금 + 2,200 원
신청자격	음악창작소 창작공간 신청을 원하는 누구나
신청방법	누리락 홈페이지 내 온라인 신청서 작성 (www.nurack.or.kr)
문의	세종문화재단 대관문의팀 (044-850-0572)

리텍콘텐츠 출판사, '스크린의 기억, 시네마 명언 1000' 출간



리텍콘텐츠 출판사가 '스크린의 기억, 시네마 명언 1000'을 출간했다고 밝혔다. 몇백 년이 지난 고전 소설이 여전히 읽히듯, 명작으로 꼽히는 영화는 만들어낸 시기와 상관없이 많은 사랑을 받

고 있다. 이는 영화가 역사, 철학, 문학을 다룬 인문학 도서 못지않게 인간 본연의 삶에 관해 이야기함으로써 감상자의 통찰력을 넓혀주기 때문이다. 영화를 통해 얻은 감동과 통찰들은 수만 권의 독서를 통해 쌓은 세상에 대한 지식에 비기는 수준이다.

지금도 날마다 새로운 영화가 제작돼 여러 매체를 통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그만큼 무엇이 재밌고 감동을 주는지 구분하기 어렵게 됐다. 그래서 이 책에는 수많은 이에게 감동을 주고 통찰력을 넓혀줬던 영화들을 엄선하는 데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다. 소설에 명문장이 숨어 있듯, 영화에도 명대사가 있어 때로는 감정에 푹 빠지게 되고 때로는 삶을 되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명대사·명언이 있다. 영화의 내용과 그 속에 등장하는 주옥같은 대사를 접하는 것만으로도 독자님의 감성력과 통찰력이 한 단계 더 심오해질 것이다.

전순희기자

인천시립송암미술관 민화 특별전 개최

“민화, 비밀의 화원을 품다”



인천광역시 송암미술관에서 오는 15일부터 조선 후기의 민화 특별전 「민화, 비밀의 화원을 품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조선 후기 민화 중 가장 많이 그려지고 인기가 많았던 그림은 화조화이다.

화조화는 꽃과 새뿐만 아니라 털이 달린 동물인 영모도, 물고기가 나오는 어해도, 꽃과 식물이 나오는 화훼도, 풀과 곤충이 나오는 초충도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가정의 행복을 기원하는 그림인 동시에 세상의 평화를 염원하는 그림 즉 행복화

라고 할 수 있다.

전시는 크게 2부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1부 '가정의 행복'에서는 화조화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화조화에 담겨 있는 부귀간의 화목, 다산, 출세, 부귀 등의 길상을 살펴본다.

2부 '세상의 평화'는 태평성대하고 평화로운 세상이 되기를 기원하는 봉황과 연꽃을 그린 민화를 소개한다. 우리 선조들은 사계절을 상징하는 각종 꽃과 새를 그려 안방에서 사계절의 변화를 감상했다. 이번 특별전을 통해 올해는 가족들과 함께 비밀의 화원으로 들어가 보시길 바란다.

김장성 인천시 송암미술관 관장은 "이번 민화 특별전은 코로나로 인한 시민의 어려움을 위로하고자 기획한 전시로, 선조들의 민화 그림을 통해 가정의 행복과 소중함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특별전은 6월 15일부터 11월 28일까지 인천시 송암미술관 기획전시실에서 열리며 관람료는 무료이다. 기타 문의사항은 송암미술관으로 연락하면 된다.

김종남기자

'2021 전주단오', 덕진공원서 성료

창포 머리감기, 단오 풍년 기원제, 단오 향연, 단오등 소원지 달기 등 즐길거리 풍성



무형문화재 공연과 합창단, 난타 등의 '단오 향연'도 선보였다. 단오 풍년 기원제와 단오 향연은 '2021 온라인 전주단오' 공식 블로그와 유튜브에 녹화 중계됐다.

또 기획행사도 △천년 역사 전주단오의 역사를 되돌아보는 '단오 사진 전시회' △전주시민의 안녕을 기원하는 '단오등 소원지 달기' △스포츠 코로나 시대에 전주단오 활성화를 위한 모색하기 위한 '전주단오 온라인 문화

대답' △전주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전주단오 '홍보 이벤트' 등이 진행됐다.

최라기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전주단오 행사는 천년전주의 전통을 이어가고 전주시민들의 삶 속에서 가장 의미 있는 세시풍속 중 하나로 자리매김해온 축제"라며 "앞으로도 절기와 관련된 다양한 체험과 풍성한 볼거리를 준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승일기자

경기도, 기획부동산지분쪼개기 부당이익만 26억원. 특별공급 부정청약자도 무더기 적발

부동산 불법 투기 주요 사례

■ 적발 178명(검찰송치 17명, 형사입건 79명, 수사중 82명)

사례1 | 기획부동산의 무자격·무등록 중개로 시세차익 및 중개수수 부당이익 편취

1. 기획부동산 직원 또는 직원 지명인 명의로 부동산 매매 계약 체결
2. 기획부동산 직원 또는 직원 지명인 명의로 부동산 매매 계약 체결
3. 기획부동산 직원 또는 직원 지명인 명의로 부동산 매매 계약 체결

사례2 | 허위 임대차계약으로 임대료 특별공급 가점 취득 후 부정당첨

1. 허위 임대차계약 체결
2. 임대료 특별공급 가점 취득
3. 부정당첨

사례3 | 노후모양 특별공급 청약자격을 거짓 허위한 부정당첨

1. 노후모양 특별공급 청약
2. 허위 청약
3. 부정당첨

사례4 | 건설지역 거주자 우선 공급권 편취를 위한 위장전입 후 부정당첨

1. 위장전입
2. 우선공급권 편취
3. 부정당첨

▶ 처벌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친인척 명의로 토지를 매입한 후 지분쪼개기 방식으로 부당이익을 취한 기획부동산과 지난해 과천시지정 보타운 분양 아파트 부정청약자 등 불법 부동산투기 178명이 경기도 단속에 걸렸다. 이들이 얻은 불로소득은 1,434억 원에 달한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4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기획부동산 등 부동산 불법 투기 기획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 단장은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기획부동산의 무자격·무등록 중개 행위와 지난해 청약경쟁률 245:1을 기록한 과천시지정보타운 분양 아파트 부정청약 등 부동산거래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기획수사를 실시해 178명을 적발했다"면서 "이 중 17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79명은 형사입건했으며, 82명은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주요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종합설계 주식회사의 대표 A, B는 분양대행, 부동산건설 등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한 후 친인척 5명의 명의로 시흥시 및 평택시 소재 토지 총 11필지, 1만1,426㎡를 약 18억 원에 매입했다.

이후 이들은 주부 및 미취업 청년 등 30여명의 상담사를 고용한 후 '주변에 카지노 등 개발호재가 많아 시세차익이 예상된다'는 거짓 홍보를 하면서 상담사의 친구와 지인 등 불특정 다수인 135명에게 지분쪼개기 방식으로 7개월 사이에 시세보다 높은 44억 원에 토지를 매도해 총 26억 원의 부당이익을 취했다.

과천시지정보타운 아파트 부정청약도 176명 적발됐다.

C는 장애인인 아버지가 의왕시에 소재한 요양원에 입소하고 있는데도 장애인 특별공급 중 거주자 가점 15점을 더 받기 위해 과천시였던 아버지의 기존 주거지 청약기간을 연장하면서 매달 임대료를 지급하는 등 증거자료를 준비해 청약에 당첨됐다.

D는 과천시지정보타운 아파트 중 일반공급보다 경쟁률(일반공급 458:1, 특별공급 95:1)이 낮은 노후모양 특별공급으로 분양받기 위해 전북 익산시에 소재한 요양원에 거주 중인 외할머니를 과천시에 세대원으로 전입 신고해 아파트를 공급받았다.

E는 성남시에 거주하면서 과천시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물량을 분양받기 위해 과천시 소재 친척 집에 세대주로 위장 전입한 후 과천시지정보타운 생애 최초 특별공급에 청약했다. 그 결과 과천시 1년 이상 실제 거주자에게만 주어지는 우선공급분 30%에 당첨됐다.

해당 아파트의 프리미엄이 현재 7억~8억 원대에 형성돼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런 방식으로 176명이 쟁쟁한 부당이득은 1천408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도는 보고 있다.

현행 법령 상 무자격·무등록 부동산 중개행위자와 부정청약자는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며, 부정청약자는 해당 분양권이 취소되고, 위약금으로 계약금액의 10%를 시행사에 지불해야 한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부동산 불로소득 근절을 위해 지난해 청약경쟁률이 높았던 아파트를 대상으로 부정청약 수사를 확대하고, 특히 기획부동산의 지분 쪼개기 방식의 중개행위에 대해 전면 수사를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최근수/기자

광주광역시, 평동 이어 빛그린산단에도 개방형체육관 들어선다

산업단지 근로자 및 주민 생활체육 참여 기회 확대



광주광역시는 전국 최초 지역 상생형 일자리 모델인 광주글로벌모터스(GGM) 완성차공장이 들어선 빛그린산업단지내 근로자들과 주민 복지를 위한 개방형체육관 건립공사를 15일 착공한다.

광주시는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2018년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 공모대상자로 선정돼 국비 50억원을 확보했고, 시비 50억원을 포함 총사업비 100억원 규모로 '빛그린산단 개방형체육관'을 건립한다.

사업부지는 빛그린산단 체육공원으로 정면에 축구장과 인접하고 있어 향후 산업단지 근로자 및 주민들의 생활체육 참여 거점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체육관은 지하 1층~지상 3층 연면적 2560㎡ 규모로 1층에는 주차장과 화장실, 2층에는 25m 수영장 5레인 과 유아풀, 샤워실 및 탈의실을 설치하고 3층에는 농구, 배드민턴 등 다양한 종목이 가능한 다목적체육관으로 조성해 내년 7월 완공할 예정이다.

김준영 시 문화관광체육실장은 "민선 7기 최대 공약인 광주형일자리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여가활동 지원을 위해 빛그린산단에 개방형체육관을 건립한다"며 "일과 삶이 균형을 이뤄 건강하고 행복한 광주를 만들기 위해 문화·체육 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덕윤/기자

광주시는 평동산단에도 국비 50억 원을 포함해 총 사업비 100억원 규모로 수영장을 갖춘 개방형 체육관을 건립 중에 있어 내년까지 산업단지 2곳에 개방형체육관이 들어설 예정이다.

평동산단 개방형체육관은 육동2근린공원 내 축구장과 인접하고 있으며, 연면적 2471㎡로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다.

1층에는 25m 수영장 5레인과 샤워실, 탈의실을 설치하고 2층에는 다양한 종목이 가능한 다목적체육관으로 조성해 내년 4월 완공될 예정이다.

김준영 시 문화관광체육실장은 "민선 7기 최대 공약인 광주형일자리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여가활동 지원을 위해 빛그린산단에 개방형체육관을 건립한다"며 "일과 삶이 균형을 이뤄 건강하고 행복한 광주를 만들기 위해 문화·체육 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덕윤/기자

부산시, 국제관광도시 육성사업 2차년도 사업 본격 추진

국제관광도시 육성사업 1차년도 사업 성과 분석 및 글로벌 시민자문단 통한 현장 모니터링 실시



부산시는 국제관광도시 육성사업의 1차년도 사업성과를 점검하고 개선점을 찾기 위해 6월 중 글로벌 시민자문단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글로벌 시민자문단은 수요자 관점의 국제관광도시 사업 개발 및 자문을 위해 국내 거주 외국인 10개국 14명으로 2020년 12월 공모를 통해 선정된 자문단이다. 자문단은 작년

한 해 설치된 주요 관광지 무료 와이파이, 관광안내표지판 등 관광수용태세를 확인하고, 부산의 시그니처 기념품 및 전시장 등에 대한 개선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한편, 기재부는 지난 2월부터 부산을 포함한 5개 관광거점도시(강릉, 전주, 목포, 안동) 육성사업에 대한 적정성 재검토를 한국개발연구원(KDI)을 통해 추진하고 있다.

시는 적정성 재검토가 마무리되는 올해 10월까지 국비 집행이 불가한 상황이지만, 시비를 우선 집행해서 2차년도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시는 국제관광도시 ▲홍보마케팅 통합발주, ▲세븐브릿지 랜드마크 프로젝트, ▲글로벌 컨벤션 전시회 육성 등 13개 사업에 대해 6월부터 시비 51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국제관광도시 홍보마케팅 식은 기존 세부 사업별로 각각 발주하던 체계에서 통합발주 시스템으로 변경하여 수준 높은 홍보·브랜드 영상 및 효과적인 마케팅체계를 갖춘 계획이다.

세븐브릿지 랜드마크 프로젝트는 관광대교를 비롯하여 부산의 7개 해양교량을 브랜드링하는 사업으로 시민 공모전 개최, 브랜드 개발, 스토리텔링 및 관광코스 발굴 등을 거쳐 국내외 관광객에게 부산을 매력적인 관광목적지로 인식시키는 사업이다.

또한, 국제관광도시 육성사업 추진은 관 주도라 아닌 민간중심의 민간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여 글로벌 관광트렌드 변화에 즉각 대응한다. 민간거버넌스는 추진상황보고회 등을 통해 국제관광도시 사업 추진전략 및 연도별 사업계획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남경영/기자

한편, 부산시는 오는 6월 29일 관광업계와 시민이 함께하는 국제관광도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국제관광도시 홍보동영상 시사회 ▲관광마이스산업업종의 국제관광도시 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브리핑 ▲국제관광도시 홍보동영상 배경음악에 참여한 부산출신 밴드 세이수미 공연 ▲브랜드 전문가인 한양대 홍성태교수의 강연으로 국제관광도시 부산의 전략적 브랜드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조유장 부산시 관광마이스산업국장은 "국제관광도시 2차년도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서 백신접종에 따른 집단면역과 지역경제 회복 시기에 본격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대비하고, 시민과 함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경영/기자

인천시, 보호 종료(예정) 청년일자리 지원 위해 전국 최초 '민·관·학 거버넌스' 구축

인천광역시시는 6월 14일 인하대학교(총장 조명우), 인천아동복지협회(협회장 우치호), 인천가정위탁지원센터(관장 박은숙)와 시설보호가 종료되거나 예정인 청년들의 일자리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경제·사회구조의 변화 및 코로나 19로 인해 타 연령층에 비해 청년층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큰 상황에서 만18세에 법적으로 자립할 나이가 됐다는 이유로 보호시설을 떠나야 하는 보호 종료(예정) 청년들의 안정적 자립을 위해 4개 기관이 적극적으로 상호 협력하기로 손을 맞잡은 것이다.

이번 협약은 '인천형 휴먼뉴딜'이라 할 수 있는 경제·복지 정책과의 연계 강화의 일환으로, 취업 사각지대 청년대상 전국 특·광역시중 최초로 민·관·학이 함께 보호시설종료(예정) 청년의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상호 협력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네 기관은 청년들의 개인 특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원방안 등을 강구하고 협력해 취업사각지대 청년 일자리 지원과 통합 지원체계의 초석을 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지난 5월 인대와 아동복지

기관이 협업해 보호 종료(예정) 청년 75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실질적 니즈를 파악하고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설계했으며, 6월 22일부터 '찾아가는 취업스터디' 프로그램으로 청년들을 만날 예정이다.

이는 현금성 지원에서 탈피해 인하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의 전문 컨설턴트가 양질의 취업스킬과 정보를 아낌없이 지원할 예정이다. 보호 종료(예정) 청년들의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시기에 삶을 주체적으로 계획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변주영 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사회경험이 부족하고 가족, 친지 등 인력인프라 없이 고용문턱을 혼자 넘어야 했던 취업 사각지대 청년들의 답답함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서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기관 간 폭넓은 공조와 정보교류로 취약계층 청년의 가장 큰 걱정거리인 취업문제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한, 시는 '취업사각지대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을 올해 운영 후 성과·평가분석을 통해 지원 대상을 발굴해 점차 확대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김종남/기자

전라남도, 남북교류협력 20년 생생하게 보여준다

전남도, 14일부터 615 남북정상회담 21주년 '평화통일 전시회'



전라남도는 6·15 남북정상회담 21주년을 기념해 14~18일 도청 1층 윤선도홀에서 '평화 통일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는 2000년 6월 15일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돼 전 세계에 한반도 평화와 협력을 선언했던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또한 문재인정부 출범 후 성사된 네 차례의 남북정상회담 사진과 전남도와 민간이 공동으로 추진했던 남북교류협력 20년간의 기록 등을 포함해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을 담은 40여 점의 사진도 함께 전시한다.

부대행사로 진행되는 가상현실(VR) 체험행사에선 북한의 평양 시내 모습과 만수대, 유류관, 대동강 등 북한지역 명소를 실감나게 체험할 수 있다. 북한 주민이 실제 사용

김영만/기자

하는 다양한 생활물품과 북한 애니메이션 등도 관람할 수 있다.

전시회 기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정해진 시간마다 관람객 10여 명을 대상으로 남북통일과 북한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알려주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메시지를 담을 수 있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김규용 전남도 자치행정과장은 "전남은 역사적인 6·15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켜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김대중 대통령을 배출한 세계평화를 상징하는 지역"이라며 "이번 전시회 개최를 통해 도민 자긍심이 높아지고, 평화통일에 대한 관심과 공감대가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민선7기 들어 도와 시군, 민간이 공동 참여하는 (사)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를 설립하고 대북 의약품 지원 등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앞으로도 호남권 통일+센터가 완공(2023년 2월)되면 통일 분야 종합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남북협력사업도 대내외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영만/기자

경상남도, '거제동백오일' 함양산삼항노화 엑스포 공식 인정상품 선정

경상남도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 조직위원회는 경남 거제의 농업회사법인 거제동백연구소에서 생산하는 '거제동백오일' 제품이 15번째로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 공식 인정상품에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거제동백오일은 머릿기름으로 대표되던 동백오일의 이미지에서 벗어나 식용 가능한 고급 오일인 피부에 바르는 화장품도 가능한 곁용 제품이다. 특히 이 오일은 청정 남해안의 풍부한 일조량과 해풍을 맞으면서 자연에서 자란 동백나무의 종자에서 100% 비화학적 정제를 통해 생산하며, 불포화지방산인 올레인산이 84%나 포함된 고급 식용오일이다.

특히 올레인산은 혈청 콜레스테롤 농도를 낮추고 혈관을 깨끗하게 하여 고지혈, 고혈압, 체지방을 낮추고 피부 친화력이 우수하여 보습 기능, 윤기 부여, 가려움 방지에 효과적인 성분으로 알려져 있다.

임원숙 대표는 "산삼과 항노화를 주제로 개최되는 세계적인 행사인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의 공식 인정상품에 '거제동백오일'이 선정되어 큰 영광이다"고 말하면서, "우리 몸과 가장 가까운 식용유인 동백오일을 통해서 새로운 음식문화와 천연 화장품 산업을 선도해 나갈 것이며, 엑스포 성공 개최를 위해 적극 협력하고 엑스포 이미지 제고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김준순 사무처장은 "동백기름은 조선시대에 왕에게 진상되어 예로부터 귀하게 여겨 왔는데 웰빙시대에 맞추어 식용이 가능토록 개발한 '거제동백오일'이 15번째 엑스포 공식 인정상품으로 선정된 것을 축하한다"면서, "거제동백오일이 세계적인 입맛을 사로잡아 우리나라 대표 식용유로 거듭나고, 거제동백연구소를 통해 경남에도 건강한 먹거리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엑스포 조직위원회에서도 홍보에 온 힘을 쏟겠

다"라고 다짐했다.

한편, 인정상품으로 선정된 업체에게 엑스포 기간 내 행사장 배너광고, 엑스포 임대버스 우선사용권(임대료 별도) 등을 제공할 계획이며, 도내 우수 제품을 엑스포 공식 인정상품으로 선정하여 엑스포 개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 인정상품 선정 공모사업 접수기간은 6월 30일까지다.

현재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 공식 인정상품은 15개 제품으로 '거제동백오일' 외 피톤치드베이비오일, 용추유기농쌀, 지리산함양쌀, 하미양와인세트, 함양산양산삼골드스틱, 산양삼테일리, 삼양산삼진생흑도라지, 산양삼, 산양산삼한뿌리그대로, 산양삼삼머구, 산양산삼속으로, 지리산산양삼오죽달팽이, 산양삼을 품을도라지진액조청, 함양산양삼정진액 등이다.

최광용/기자



‘봉담 프라이드시티’ 6월 7일 사이버 견본주택 오픈

화성에서 누리는 4000여 세대 랜드마크 브랜드 타운

봉담 프라이드시티 4.034세대 중 1단지 GS건설 1,701세대 먼저 분양 6월17일 특별공급, 6월18일 해당 지역 1순위, 6월21일 기타지역 1순위 진행

코로나19 바이러스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사이버 견본주택으로 운영

삼봉산 자락 쾌적한 주거환경, 다양한 교통망 조성...명품 조경 설계 선택

6월7일(월) 경기 화성시 봉담 내리지구 도시개발지구에서 4,000여 세대 대규모 단지로 조성되는 ‘봉담 프라이드시티’가 베일을 벗었다. 국내 대표 건설사들이 시공에 참여하는데다, 주거만족도를 높여줄 다양한 상품설계 등이 적용돼 분양 전부터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

‘봉담 프라이드시티’ 4,034세대 중 GS건설이 시공하는 1단지 1,701세대 ‘봉담자이 프라이드시티’가 먼저 분양에 나선다. ‘봉담자이 프라이드시티’는 지하 4층~지상 35층, 11개동 규모로 전용 59~105㎡ 평면으로 구성된다.

‘봉담자이 프라이드시티’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사이버 견본주택으로만 운영된다.

사이버 견본주택은 ‘봉담 프라이드시티’ 공식홈페이지(<http://bd-pridecity.com>)를 통해 공개되며, 사이버 견본주택을 통해 견본세대 구성 및 옵션사항 등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다.

또한 방문상담을 희망하는 고객을 위해 홍보관을 운영한다. 상담을 원하는 수요자는 봉담 프라이드시티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홍보관 방문상담 예약을 한 뒤 상담을 받으면 된다. 바쁜 수요자들을 위한 전화예약 상담서비스도 제공한다.

이번에 분양하는 ‘봉담자이 프라이드시티’ 분양일정은 6월17일(목)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6월18일(금) 1순위 해당지역, 6월21일(월) 1순위 기타지역 청약의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6월28일(월)이며 7월10일(토)부터 16일(금)까지 정당계약을 진행한다.

분양관계자는 “화성봉담에 조성되는 대규모 브랜드타운단지로 분양 전부터 화성지역 및 인근 수원, 안산 지역에서 많은 문의가 오고 있다”며 “최근 봉담에 입주한 아파트가 전용 84㎡기준으로 5억원을 돌파한 것에 비해 봉담자이 프라이드시티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분양가가 책정됐으며 평형대도 다양하고 주거환경이 쾌적해 늦기 전에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젊은 세대와 전세에서 매매로 갈아타기 하려는 중장년층, 그리고 은퇴 후 새롭게 삶을 시작하려는 노년층 등 다양한 세대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어 좋은 분양 성적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봉담 프라이드시티가 들어서는 화성봉담 내리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경기도 화성시 봉담 내리지구545번지

일원 약 26만 6,540㎡를 개발하는 민간도시개발 사업이다. 이 곳에는 봉담 프라이드시티 4,034세대와 단독주택, 준주거시설 등의 주거시설과 초등학교 1개소, 공원 5개소, 주차장 2개소, 공공청사 1개소, 도로 등의 도시기반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봉담 새 아파트 5억원 돌파...봉담자이 프라이드시티 4억대 분양가로 수요자 부담 덜어

‘봉담자이 프라이드시티’는 합리적인 분양가로 책정돼 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부담을 덜어준다. ‘봉담자이 프라이드시티’ 분양가는 전용 84㎡기준 최저 4억2,560만원, 최고 4억6,220만원으로 4억원대이다. 최근 봉담에서 거래된 새 아파트 가격이 5억원을 돌파한 것과 비교하면 저렴한 수준이다.

실제로 화성시 봉담읍 새 아파트 가격은 3.3㎡당 2,000만원을 넘어섰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하면 봉담은 3.3㎡당 2,000만원을 넘어섰다. 봉담2지구 ‘e편한세상 신봉담’(2019년 9월 입주) 전용 59㎡는 5월에 5억원에 거래됐다. 3.3㎡당 2,024만원이다. 이 단지는 1년 전 2020년 6월에 2억8,000만원에 거래됐다. 1년 사이 무려 77% 가량 상승한 것이다.

‘e편한세상 신봉담’ 외에도 5억 원대 거래가 활발하다. ‘봉담센트럴푸르지오’(2017년 2월 입주) 전용 84㎡ 경우 5월 거래된 가격을 보면 5

억2,500만원으로, 3.3㎡당 1,530만원을 넘어섰다. ‘봉담한신더휴에듀파크’(2019년 6월 입주) 전용 84㎡도 4월에 5억1,500만원에 거래되며 3.3㎡당 1,520만원을 훌쩍 넘어섰다.

■삼봉산 자락의 쾌적한 주거환경, 단지 옆 초교 예정, 수인분당선·KTX 어천역 위치

봉담 프라이드시티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춘 숲세권 단지다. 단지가 삼봉산 자락에 위치해 있는데다 경관녹지,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등의 다양한 공원 및 녹지시설로 이뤄져 있다.

단지 주변으로 다양한 교통망도 잘 갖춰져 있다. 인근으로 비봉~매송간 도시고속도로,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송산~봉담(예정)~동탄), 서해안고속도로, 수원광명간고속도로 등의 광역도로망이 있어 차량을 통해 타 지역 이동이 수월하다. 특히, 내리지구와 인접해 있는 매봉로를 통해 봉담2지구로 직접 이동이 가능하고, 내리지구 남측으로 내리~상기리(322번 지방도)간 도로 신설도 검토 중에 있어 교통여건은 더욱 좋아질 전망이다.

또한, 단지에서 반경 약 3km 거리에 수인분당선 어천역이 있어 이를 통해 인천이나 수원, 분당, 서울 등으로 한번에 이동이 가능하다. 특히 수인분당선 어천역은 인천발 KTX 직결사업(2024년 완공 예정)을 통해 KTX 환승역으로 개발될 예정에 있어 부산이나 목포 등 지방 각지로 빠

르게 이동할 수 있다.

여기에 ‘신분당선 호매실~봉담’ 연장 노선 구간에 대한 호재도 기대해 볼 수 있다. 4월22일 국토교통부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분당선 호매실~봉담’ 연장 노선 구간을 반영하겠다고 발표했다. 6월에 진행될 예비타당성 조사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오면 향후 화성시 봉담읍은 강남권역까지 연결되는 신분당선 수혜를 입을 수 있다.

또한 내리지구 내에 초등학교가 입주시점에 맞춰 신설될 예정으로 아이들의 안전통학이 가능하고, 봉담지구 내 봉담중, 봉담고 등의 학교도 이용할 수 있다. 여기에 신설초등학교 내 국공립 병설 유치원과 더불어 단지 내 아이들의 보육 및 교육이 가능하도록 시간제보육실을 포함한 시립어린이집, 방과 후 초등학생을 위한 다함께돌봄센터도 단지 내 설치될 예정에 있어 0세부터 초등학교 고학년까지 단지 내 돌봄이 가능해 어린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에서 안심하고 어린 자녀들을 맡길 수 있다.

특히 다함께돌봄센터의 경우 공공·민간 자원의 연계로 정기돌봄 및 일시돌봄 등 유연하게 운영되고 등·하원 및 급·간식 등도 지원한다. 접근성이 우수해다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어 어린 자녀를 둔 입주주민들의 선호도가 높을 전망이다.

■봉담 최대의 랜드마크, 美 하버드대니얼 커쿠드 교수 조경 참

여...고급스런 커뮤니티시설 조성

봉담 프라이드시티는 화성시 봉담 일대의 최고 높이인 35층에 4,034세대의 최대규모로 조성되는데다 봉담지역 내 희소성 높은 메이저브랜드 시공으로 조성돼 상징성을 갖췄다.

단지는 남향 중심의 배치와 판상형 위주의 설계로 채광성과 통풍성이 우수하다. 100% 지하주차 설계로 지상에는 차 없는 단지로 조성돼 단지에서 안전한 생활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실내 일부타입에는 드레스룸, 파우더룸, 팬트리, 알파룸, 다용도실 등 다양한 수납공간이 제공되며, 팬트하우스로 조성되는 전용 105㎡의 경우 가족실은 물론 넓은 공간활용이 가능하다.

조경면적이 약 50%에 달할 정도로 단지 안팎에서 쾌적한 생활이 가능하며, 美 하버드대학교 ‘니얼 커쿠드’ 교수가 단지 조경에 직접 참여해 주변에서 찾아 볼 수 없는 차별화된 조경으로 꾸며진다. 여기에 수영장, 사우나, 게스트하우스 등의 차별화된 고급 커뮤니티시설들도 조성될 예정이다.

봉담 프라이드시티 견본주택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532-2번지에 위치한다. 이번에 분양하는 ‘봉담자이 프라이드시티’ 입주는 2024년 7월 예정이다. 평균 분양가는 3.3㎡당 1,323만원이다.

분양문의 1599-4235

김남주기자



봉담자이 프라이드시티